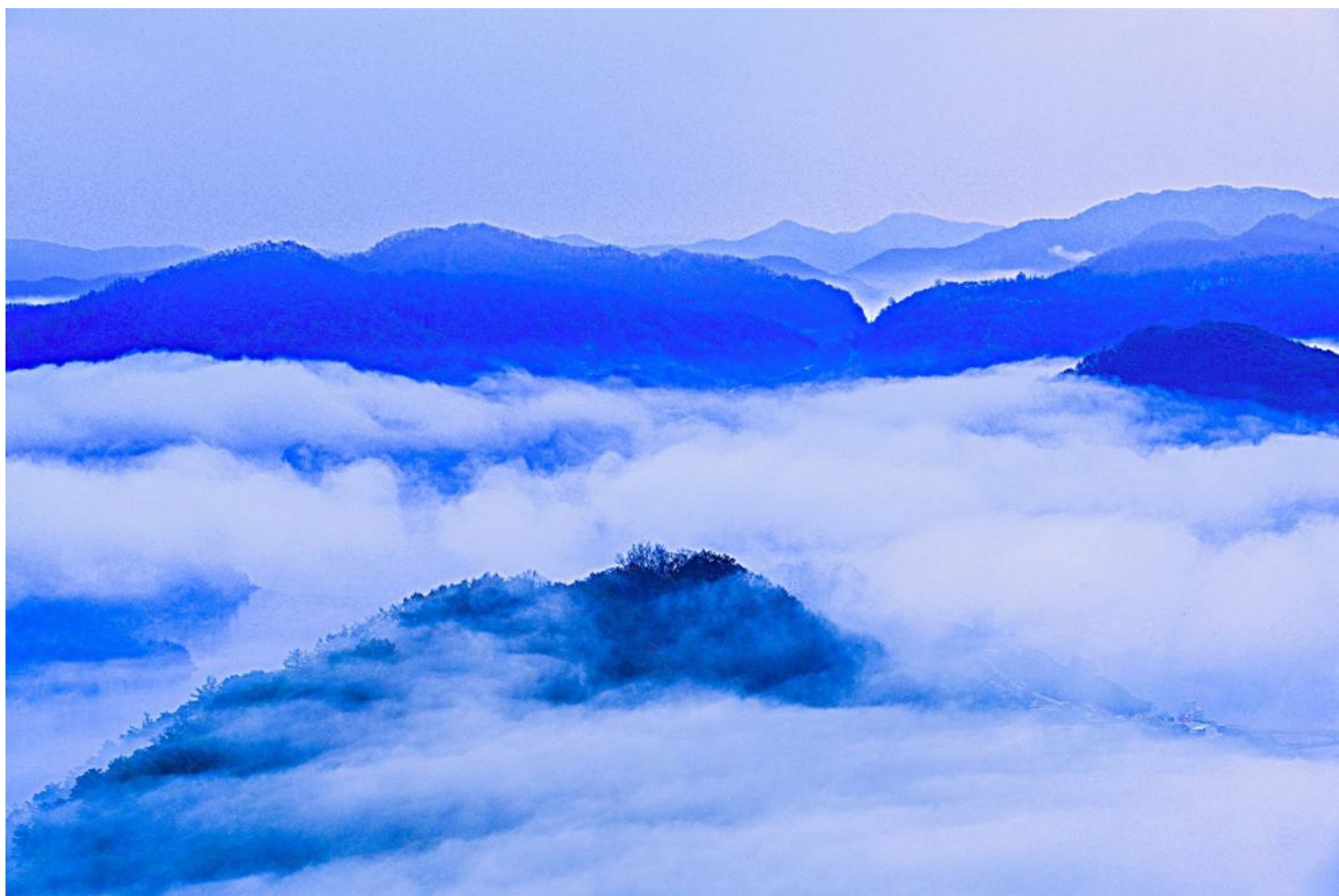


무등문화

無等文化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2021 / vol. 26

무등문화

無等文化

문화비전 선언문

Culture
Vision
Declaration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을 전문적으로 적극 육성한다.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북구문화원장
彌奉 오 동 오

문화는 우리 삶을 건축하는 것

지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낯선 유배지에 갇혀있는 이민자와 다름없이 거리두기의 벽에 둘러 쌓여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와 청년들의 꿈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취업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롤리코스트..... 날마다 다양한 계층의 욕망과 가능성이 뒤섞여 양극 사이를 위험하게 항해하는 사회, 어디서든 성공을 향한 무법질주가 사회 전반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활자화 되는 뉴스들도 어느 길로 가야할 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흔들린다. 가끔은 신문의 기사가 잘못 실릴 수도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삶은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만큼 살아있는 것이라 한다. 그 감동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해 먼 곳으로 번져간다.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 하나가 일으키는 파문이 멀리 번져 가듯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은 그렇게 이웃에 전염된다. 문화는 행복을 스미듯 번지게 하는 우리들 삶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IT 산업과 로봇을 연구해 냈지만 이제는 그 문명의 발전 속도를 따라 가느라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인간의 문화는 던지는 문화에서부터 시작 됐다고 한다. 문명은 최초에 돌맹이를 던지며 시작되었고, 인간의 문화는 아기가 자신의 물건을 던지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발전을 하려면 자신을 던져야 한다. 자신을 세계무대로, 또는 지금보다 더 큰 무대로 던져야 한다.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지는 자신의 모습은 최선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정한 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트레이닝 받는 것으로 영역을 넓혀간다면 우리들 삶의 소소한 행복은 참으로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프랑스에 있는 루이뷔통 본사의 지붕은 햇빛에 따라 지붕색이 변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 번도 같은 지붕의 색을 낸 적이 없다고. 때문에 이 지붕을 보는 사람 모두가 재미있어하고, 신기해한다. 그 즐거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력을 발견할 수 있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답을 찾게 한다. 문은 없어도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공간이 문화라는 생각이다. 문화원도 전시실도 교육 프로그램까지 열린 공간에서 삶은 아름다운 건축으로 완성된다.

임인년 새해에는 문화원 가족들의 가치가 최고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이곳에서 문화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 창조의 숲을 이루고 우리 주변 곳곳이 그 진솔한 향기가 널리 퍼지는 특별한 섬이 되기를 염원한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2021년도 향토문화소식지 <무등문화 제2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서도 문화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향토문화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신 오동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개원한 북구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향토자료 수집과 조사에서부터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주민참여 문화행사 활동 등 지역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구심적 역할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 문화유적을 3년에 걸쳐 조사·발굴하여 <유형문화유산> 책자발간의 성과를 냈으며, 토속말 보존을 위한 <전라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청소년의 창작활동을 위한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등 공모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북구문화원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사항을 담아『무등문화 제26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한『무등문화 제26호』는 우리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애착과 문화행사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북구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발전의 핵심기관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무등문화 제26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의회 의장
표범식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의장 표범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구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아끼고 발전시키는데 최일선에 서서 지역 문화개발에 구심점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을 맑게하는 힘이 있습니다. 광주북구문화원의 <무등문화 제 26호>의 발간은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한층더 품격높은 문화에 대한 갈증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여러분께서 문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간을 위해 고심하고 애쓰신 오동오 북구문화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와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역사와 문화의 산실이자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 북쪽의 가사문학권의 중심으로 환벽당, 소쇄원, 식영정이 있으며, 호남 시가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송순은 이 세곳을 일컬어 일동삼승(一洞三勝, 한동네에 세 개의 명승)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는 문흥동과 충효동에서 매년 개최되어 지금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민속풍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암정, 원효사, 김용학 가옥, 광주북동천주교,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5·18 국립묘역 등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들이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북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구문화원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향상에 일조하는 문화원의 활동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북구의 역사와 문화들이 보존되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경험하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아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민들이 <무등문화 제 26호>를 통해 북구의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vol. 26 2021년

Gjbukgu Cultural Center

04

발행인의 편지 / 북구문화원장
축 사 /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09

테마가 있는 문화풍경(화보) “2021년 북구문화원 행사”

17

기획 I 문화, 아름다운 관심

- 2030 달라진 문화현장 풍속도 / 최민석
- 지책 읽는 소년 니체 읽는 할머니 / 김미은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정책 포럼 / 김영순
- 봉사는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 이정선

33

기획 II 문화, 플랫폼의 가치

- 최고급 분청사기 생산지, 충효동 가마터 / 노성태
- “한복은 쉽다, 한복은 행복하다.” / 정인순 김정희
- 명승 환벽당 / 이종철



55

기획 III 문화, 스토리를 품다

- 인생의 의미를 경작하는 토양으로서 인문학 / 성진기
- 나주 문화 탐방기 / 전숙
- 이주여성의 삶과 문학 / 김을현

71

회원초대석 무드리 문예마당

- 한시 정득채
- 수필 위무량 배병수 고창옥 오충자

93

북구문화원 프로그램 입상작

제26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입상자”작품

COVER STORY



운해 / 사진작가 배 상 열

- 포토뉴스코리아 광주지사장
- 제8회 광주비엔날레 사진부문 참여작가
-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사진>
- 한국사진작가 협회<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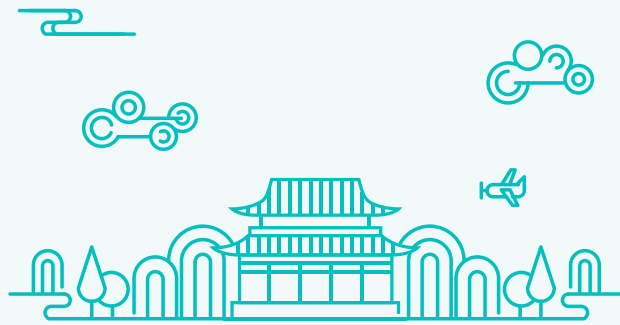
題 號

「無等文化」는 李乙浩(전 국립광주박물관장) 博士가 우리 고장의 母山이자 많은 역사유적을 안고 있는 「무등」 자체가 평민, 일반, 보통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진정한 문화운동의 철학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제호로 명명 하였다. 제호의 글씨는 故 法珪 金 貞 姬 先生이 썼다. 현계 선생은 국전 초대작가, 광주시전·전남도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무드리의 어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때 광주를 ‘무진’, ‘무진주’라고도 했으나 ‘노지(奴只)’라고도 했다.” 고 되어있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노지’란 말이나 ‘무진’이란 글자는 습지를 뜻하는 ‘무돌(물들)’이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발음의 토박이 땅이름으로 전해지는 동구 계림동과 북구 중흥동에 걸쳐 있던 경양방축 들 이름을 ‘무드리’라고 했으며 무등산 북쪽 산기슭 마을인 충효동 일대는 ‘무들 밑들’이라고 했다.

-광주 북구지 총론편



2021년 북구문화원 행사

» 북구문화원(북구평생학습관) 증축 준공식

평생학습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습실 등의 공간이 협소해 강사와 수강생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제일건설(주)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일건설이 4억 2200만원, 북구가 4억 7900만원을 들여 285㎡이 늘어난 4층 규모(연면적 1224㎡)로 증축했다.

특히,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등 건물 노후에 따른 내·외부 환경을 개선했다. 평생학습관은 1층 갤러리, 2층 사무실, 3층 프로그램실과 요리실, 4층 프로그램실 2곳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 "한국민속예술제 제23회 광주광역시에선대회 " 광주북구문화원 소속 일심가무악단 "금상"수상



» 제26기 문화학교 및 제21기 사회교육강좌

- 장 소 : 북구문화원 강당,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
- 참가대상 : 일반인
- 강 좌 : 소리·민요교실, 고전무용, 풍수지리, 민화, 고전한문, 노래교실, 사진찍기, 하모니카(초,중급), 생활영어(초,중급) 등 11과목
- 특 강 : 규방공예(배자만들기, 나비브로치 외), 스마트폰활용법
- 강의일정 : 과목당 주1~2회(12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웃이 서로 함께하고 문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소통단절 해소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지역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 기 간 :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 자문위원 : 문화계 전문가 5명
- 추진내용 :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 구축

북구문화원 활성화와 문화진흥사업의 핵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의체 구축



»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통합브로셔 제작

- 기 간 : 2021년 3월 ~ 2021년 5월
- 대 상 : 국립광주박물관, 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 내 용 : 중외공원 일대 문화시설 위치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화예술지도 제작
- 발간부수 : 1,000부

북구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문화시설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통합 브로셔 제작



» 제27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대회 공모전

- 기 간 : 2021년 6월 ~ 2021년 7월
- 부 문 : 그리기·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글쓰기·시, 산문
- 참가대상 : 초·중·고교(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
미취학어린이
- 내 용 :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 참여인원 : 577명

청소년들의 생각을 그림 및 글을 통해 담아보게 함으로써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함은 물론, 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 여가선용과 바람직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전라도 사투리(방언) 말하기 대회

- 기 간 : 2021년 4월 ~ 2021년 5월
-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심사(원고제출)
- 대 상 : 학생, 우리 지역민 1명~3명
- 사업내용 : 경연시간 3~4분, 전라도 사투리 만담, 시낭송, 코미디, 콩트 등. 차후 당선자 원고 취합하여 책자 발간 및 영상촬영
- 참여팀 : 10팀

전라도 고유의 토속말을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함.



» 2022년 북구문화원 문화달력 제작

- 기 간 :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장 소 : 북구 지역
- 내 용 : 북구 지역 문화재, 사진명소
- 협 조 : 사진촬영 - 북구문화원 사진반
- 자료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청(<https://bukgu.gwangju.kr/kor/>)
- 배 포 : 북구관내 동사무소, 유관기관, 광주시내 문화원, 회원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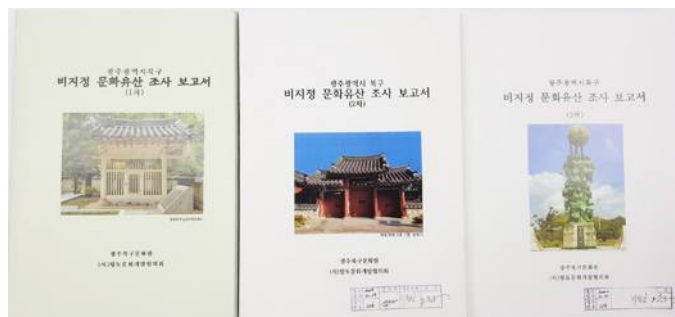
북구지역 문화재 및 사진명소를 위치와 설명을 넣어 달력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우리지역 홍보에 활용된다.



» 북구문화유적조사(유형문화유산) 책자 제작

- 기 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
- 조사지역 : 2018~2020년간 북구 관내 27개동 조사완료
- 배 포 : 전국문화원, 유관기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조사한 우리지역 27개동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유적(유형문화유물 중심)을 관리하고 문화자원화하기 위한 책자 제작이다.



» 무등문화 제26호 발간

- 장 소 : 북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 내 용 : 문화원 사업 홍보 및 북구지역의 소식지
- 배 포 : 전국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유관기관, 도서관, 문화가족

본 원에서 실시된 각종사업,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기고하고
우리지역의 문화행사를 책으로 엮은 향토문화소식지 발간

» “ 문화재 보호와 환경정화 활동” (노인일자리 공익형)

- 기 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장 소 : 환벽당 및 그 주변 문화재, 풍암정과 그 주변 및 원효계곡 하류 일대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0명
- 활동내용 :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및 훼손방지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
에게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실버예술공연단지원사업” (노인일자리 공익형)

- 기 간 : 2021년 2월 ~ 2021년 12월
- 장 소 : 북구 관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0명
(가요, 민요, 악기, 무용 등 공연이 가능한자)
- 내 용 : 흘러간 대중가요, 판소리, 민요, 우리 춤, 악기, 전통무용 등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소외된 노년층에게 제공

음악에 재능 있는 어르신들로 공연팀을 조직하여 문화소외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방문하여 교육, 공연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창출에도 도움을 주었다



»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 기 간 : 2021년 4월 ~ 2021년 12월
- 활동장소 : 풍암정, 환벽당, 취가정, 충효동왕버들, 충효동 정려비각
- 활동회원 : 역사문화해설사회 동아리 회원
- 내 용 : 관내문화재 등을 순회하면서 문화재 관리, 해설 하는 모니터링 활동(주1회 월4회)

자원봉사 동아리로 관내문화재를 순회하면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시설물관리, 화재감시 및 순찰, 문화재 해설 등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우리가락 좋을씨구~”

- 기 간 : 2021년 8월 ~ 2021년 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외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20명
- 활동방법 : 판소리, 민요, 고전무용 등 공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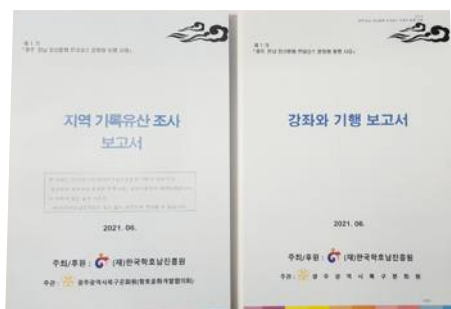
어르신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연단으로 공연 연습과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1기 광주·전남 정신문화 르네상스 문화원 동행지원 사업

- 기 간 : 2020년 8월 ~ 2021년 5월
- 내 용 : - 지역 기록유산 조사 및 정리
- 지역 역사문화자원 영상자료 제작
- 강좌와 기행

역사문화자원과 기록유산을 발굴·정리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 기록유산과 역사문화자원 영상자료를 통해 현장 기행 강좌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021년 지역문화인력(신규)지원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 기 간 : 2021년 7월~11월
- 장 소 : 북구평생학습관
- 대 상 : 연극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
- 내 용 : 대중음악과 연극을 접목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

“지역문화인력지원(신규) 지원사업”은 (재)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력 발굴 및 문화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인력과 북구문화원 협업 프로젝트사업 주크박스뮤지컬 “엄마가 사라졌다”를 진행하였다.



» 2021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찾아가는 한복체험교실

- 기 간 : 2021년 7월~12월(총 62회)
- 장 소 : 광주 북구 초등학교, 특수학교, 한복체험관 외
- 대 상 : 어린이, 특수장애아동, 소규모단체(가족)
- 내 용 : 한복이론수업 및 한복입어보기(체험용, 교육용 9종), 민속놀이 체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주최/주관으로 우리 고유 의복인 ‘한복’을 재미있게 배우고 직접 입어보는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문화, 아름다운 관심

- 2030 달라진 문화현장 풍속도 / 최민석
- 지적 읽는 소년 니체 읽는 할머니 / 김미은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정책 포럼 / 김영순
- 봉사는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 이정선

2030 달라진 문화현장 풍속도

최민석
무동일보 기자

“요즘 MZ세대(2030)는 무조건 스스로 찾고 참여하고 나만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공유하는 것도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점이지요.”

최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한 카페에서 만난 이창우(22·전남대 경영학과3)씨의 설명처럼 자신이 속한 MZ세대의 문화 소비 행태와 풍속도를 이같이 밝혔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MZ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렌탈이나 중고시장 이용)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이며,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를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아 ‘플렉스’ 문화와 명품 소비가 여느 세대보다 익숙하다는 특징도 있다.

이들 세대가 우리 문화 주류에 등장한 것은 2010년대 후반 무렵이다.

특히 2천년대 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주류 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이들 세대의 부모는 이른바 1990년대 신세대로 불렸던 70년대생 X세대다. X세대는 90년대 대학생을 다닌 세대로 이전 386세대와 달리 개인주의와 소비 성향이 크게 달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급변한 시대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정보화를 주도했고 개인 취향과 뚜렷한 개성, 개방적이고 파격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기성 세대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 부모 세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고

디지털 시대 축복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자란 세대가 지금의 2030 세대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철저히 개인적이며 실리적이고 창조적인 세대다.

이씨의 설명처럼 요즘 2030세대는 SNS에 매일 자신의 일상을 포스팅을 한다. 핫하다는 공간에 가서 놀고먹고, 새롭고 신기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거꾸로 포스팅을 위해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체험에 나서기도 한다. 가상의 공간인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즐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들고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SNS에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집이나 학교 주변의 이색 카페나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에 실시간으로 올린다.

댓글을 달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면 그곳이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된다.

‘오징어 게임’으로 널리 알려진 넷플릭스의 다양한 영화와 음악 콘텐츠를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특성이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기도 하며 인상깊게 본 작품이나 콘텐츠를 알려주는 ‘마니아 경향’도 보인다.

이들 세대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는 일부 콘텐츠는 소위 대박이 나기도 한다.

코로나 유행 이후 또 달라진 점은 여행문화의 변화다.

이전에 친구나 선후배 단위로 5-6명 소그룹 형태로 해외여행을 다녔으나 사실상 국외로 떠



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국내로 눈을 돌렸다.

최근에는 광주 인근의 가볼만한 곳이나 전주와 경주, 제주도 등 국내 여행을 1박2일이나 당일 코스로 다녀온 후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를 요약하면 아날로그 체험+디지털 자랑'으로 요약된다.

‘뮤직 페스티벌’등에 참여 후 뮤페 관련 SNS 포스팅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학생들의 경우 차가 없고 주머니 사정이 뻔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세대가 먹고 놀고 즐기는 것만은 아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전남대 등 전국 우수 대학생들이 학교별로 운영 중인 대학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개설, 학내 소식과 취업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들이 현실적인 세대임을 여

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앱은 젊은이들의 소통의 창구이자 취업게시판 역할을 하며 하루가 다르게 이용자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앱은 단과대와 소속 학과가 달라 얼굴을 모르는 선후배 학생들간 소식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학교 생활의 재미를 가져다주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창우군은 “MZ세대들은 기성 세대들과 다르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재미를 찾고 소통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또 다른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 세대”라며 “할 일 없이 ‘덕질’만 한다는 시선도 있지만 나름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세대들”이라고 말했다.

‘지젝 읽는 소년, 니체 읽는 할머니’

김미은
광주일보 문화부장



지난 2018년 광주일보 지면에 썼던 칼럼 제목이다. 당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진행했던 슬라보예 지젝 초청 강연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쓴 글이다. 강연장을 메운 200여명의 참가자 중 화순 대안학교의 10대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는데 강연 후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던 15살 소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상기된 표정의 아이는 지젝의 책을 여러 권 읽었고, 이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며 무척 아쉬워했다. 지젝의 책 한 권 ‘완독’하지 않은 나는 조금 민망스러웠다.

칼럼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 ‘카페 필로소피아’ 수업을 통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이다. 언젠가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난 그녀가 책커버를 씌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펼쳐보였다. 손때가 묻어있고, 밑줄과 메모가 가득한 ‘낡은 책’을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에선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천천히’ 철학반에서 함께 읽으며 많은 배움을 얻는다고 했다. ‘고전 중의 고전’인 이 책을 읽으려 여러 차례 마음은 먹었지만 언제나 중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는 나에게는 이

‘낯은 책’이 참 부러웠다.

당시 그녀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던 소박한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는 지금처럼 인문학 열풍이 불기 한참 전인 지난 1996년 광주시 동구 학동에 문을 열었다. 당시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성진기 교수가 편 안함과 안락함, 그 속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마음을 시작한 게 출발이었다.

이후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 전남대 후문 앞 공부방, 누리재단 사무실, 전남여고 정문 앞을 거쳐 지금의 대인동까지 장소는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함께 모여 인문학을 공부하며 대화를 나누고,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민해온 여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철학 등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언제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서양 철학사’를 읽고, 다른 강사를 초청해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 특강 ‘인문학 Sail’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 마음 인문학으로 보듬기’ ‘삶의 치유로서의 인문학’, ‘품위 있는 중년 인생 프로젝트’ 등의 강좌를 꾸준히 열고 철학 연극을 공연했다. ‘니체, 노래하고 춤추다’를 주제로 한국니체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20주년 기념으로 독일을 방문, 니체의 흔적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2021년 말 은암미술관에서는 카페 필로소피아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염원하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광수 한신대 명예교수, 노양진 전남대 명예교수, 황지우 시인 등이 강연했고 이근표 작가 등 작가들의 그림 전시, 음악 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김광수 교수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25년 동안 이런 인문학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판을 깔 성진기 교수나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대단하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다. 다이제스트식

으로 구성된 서적 등도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관련 강의도 많다. 사실, 요즘엔 회사로 쏟아지는 각종 인문학 강좌 보도자료 등을 보면 솔직히 어떨 땐 ‘강의 공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비슷 비슷한 사람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인문학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해주는 자산임에 틀림없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발품을 팔면 인문학의 숲으로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인문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시는 기반 조성 and 함께 인문 관련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단체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인문주간’ 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꾸준히 인문학 공부를 진행해온 그룹도 눈에 띈다. 심옥숙 철학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인문지행’은 지난 2014년 인문학 서적을 함께 읽는 소모임에서 출발했다. 이후 텍스트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음악, 미술, 걷기 등 삶과 함께 하는 인문학을 지향하며 다양한 강좌와 행사 등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 동명동에 ‘책방 심가네박씨’를 오픈, 이곳을 거점 삼아 활동중이다.

또 ‘광주시민인문학’, ‘시민자유대학’ 등도 꾸준히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중이다.

전남여고 앞 ‘카페 필로소피아’를 찾을 때면 차 한잔을 나누며 성진기 교수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교수와 여고생들이 만남이었다. 카페가 전남여고 바

로 앞에 있다보니 자연스레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카페를 방문했고, 학교 강의로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접했을 땐, 근사한 이웃이 옆에 있으니 아이들에게 멋진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 때 성 교수와 나눴던 이야기가 세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말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거다.

“그날 교수님의 철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 단 한명이라도 마음의 변화를 느꼈으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단 한명이라도 학교 앞 철학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와 책을 구경하고, 어떤 작은 질문이라도 던지면 그게 멋진 일 아니냐”는.

아쉽게도 나는 지금도 ‘차라투스타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독하지 못했다. 책장에는 니체의 저작과 관련 책이 가득하다. 언젠가는 읽을 거라는 생각에 일단 모아 둔 책들이다. 한 인물이 다녀갔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며 그의 흔적을 쫓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니체-알프스에서 만난 차라투스트라’(이진우), 시라토리 마루히코의 ‘니체와 함께 산책하다’, 고병권의 ‘다이너마이트 니체’ 등이 보인다.

카페 필로소피아에서 함께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철학’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은 건 아마도 곁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늘 접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인문학에 대한 갈증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서는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있고, 좋은 길라잡이들도 많다. 어렵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우선 한권의 책, 한 번의 강좌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새해를 맞았으니.

지속가능에서 메타버스까지 선보이다

김 영 순
광주문화재단 문화융합 본부장

2021유네스코미디어아트 정책포럼, 10월7일 광주 전일빌딩 245서 비대면으로
비대면 실시간 네트워크 공연도...4개 도시에서 영상, 음악, 퍼포먼스 콜라보



메타버스란다.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의 한 세션을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적지 않은 이들이 기대감을 갖고 포럼에 들어왔다. 참석이 허락된 이들이 ‘아바타’를 지정하여 자리를 잡는다. 회의장 주변이 온통 녹색이다. 딱딱한 느낌이 드는 일반 행사장과는 사뭇 다르다.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마주하는 엄격함이 아닌 상쾌함이 퍼진다. 드디어 연단에 발제자가 들어선다. 자리를 잡고 앉은 청중들은 박수를 보낸다. 크고 경쾌한 박수를 받으며 발제자가 발표를 막 시작하는 순간 어느 참석자가 연단으로 뛰어든다. 허겁지겁 뛰어 올라와 발제자를 가로막고 선다. 그 뿐 아니다. 저 뒤편에선 플로어에 앉아야 할 청중 몇몇이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린다. 알고 보니 메타버스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해 앉으려 해도 자리에 착석할 수 없거나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어 행사를 뛰어다니는 것이다. 당황스러웠지만 약간의 해프닝으로 웃음을 머금게 한 채 포럼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갔다.

10월7일 전일빌딩 245에서 개최된 2021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에서 열렸던 제2부 세션 메타버스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개최한 이번 정책포럼에선 메타버스가 시도됐다. 포럼 행사 전체를 메타버스로 진행할 수는 없었다. 포럼에 메타버스를 탑재하면서 몇 가지를 고려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그게 원만하게 가능할까, 관람객들이 적응할까 등이었다. 고민 끝에 한 세션만 메타버스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메타버스를 입혔다.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그게 뭔지를 체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의 도전이었다. 참석한 연사들도 관람객들도 모두 신기해하며 재미있어했다. 가상의 세상에서 사랑,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했던 이들이 메타버스를 실제 체험하며 누군가는 어렵다, 별거 아니라 의견이 분분했다. 또 누군가는 앞으로 이 세상이 메타버스에서 무궁무진하게 열리며 확장될 거라고 긴장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번 정책포럼 주제는 ‘회복 가능한 도시 : 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로 메타버스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기후·날씨·환경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미래적 회복을 이야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의 기조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인간과 기술,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이번 포럼 구성은 ▲세션1 '회복 가능한 도시를 위한 SDGs 실천과 사례' ▲세션2 'Into the City of Metaverse(메타버스 도시 속으로)' 그리고 ▲종합토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위한 광주의 실천적 과제'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세션2는 기술 분야 메가트렌드인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예술과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포럼의





오프닝은 4분정도의 영상작품 ‘지금 내가 바라는 세상 : 코로나 굿바이’을 상영했다. 해당 영상작품은 지난 8개월 동안 광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랩’에서 활동해 온 시민 창·제작자(시.작.팀)의 결과물.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노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담은 영상이다.

■ 주제 : 회복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목표

세션1 ‘회복가능한 도시를 위한 SDGs 실천과 사례’는 송진희(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씨가 사회를 맡으며, 기조발제로 ▲한경구(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씨가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 - UN SDGs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인선(광주시 총괄건축가)씨가 ‘광주, 회색을 넘어- 문화생태도시를 향한 광주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지는 발제로 ▲김안나(미디어아티스트 겸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씨가 ‘지속가능한 세계 예술적 가능성-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에 이야기하고 ▲영국(요크)출신 크리스 베일리(Chris Bailey)(유네스코 창의도시 영국 요크의 포컬 포인트)씨가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3개 도시 간 공동 프로젝트인 City to City : Play!’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 주제 : 메타버스 도시 속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진행되는 세션 2 ‘Into the City of Metaverse(메타버스 도시 속

으로)’는 김영미(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씨가 사회를 맡는다. 기조발제는 ▲책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강원대학교 교수)씨가 ‘메타버스 도시와 예술’에 대해 얘기하고, 이어지는 발제로 ▲전진수(SKT 메타버스CO장)씨가 ‘레디 플레이어 원 처럼... 현실을 초월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기한다. ▲김영미(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씨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가상 관광플랫폼(메타버스)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민문호(오썸피아 대표)씨가 ‘가상공간 메타버스 융합비즈니스 모델 및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주제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위한 광주의 실천적 과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세션1·2 발제를 바탕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위한 광주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토의하며, 종합토론의 좌장은 송진희(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씨가 맡았다.

이어, 특별 세션으로 4개 국가의 국내외 창의도시들이 같은 시간에 접속해 참여하는 ‘Net Play Beyond Network performance : This is not a game’이라는 실시간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을 선보였다. 4곳의 참여도시는 광주·스페인·프랑스·부천 등으로 (광주)폴바주카, 염인화 그리고 (스페인)바르셀로나 Fundación Épica La Fura dels Baus(푼다시오 에픽카 라 부라 델스 바우스) (프랑스)앙기앵레벵 PULSO(폴쏘) 마지막으로 문학창의도시인 (부천) 비보잉 그룹 진조크루가 함께한다. 더불어,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의 취지는 구본철(전 카이스트 문화기술 연구소 교수)씨가 발표했다.

이날 포럼 말미에선 또 하나의 기술이 선보여졌다. 우리는 기술이 주도하는 세상에 사나보다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비대면 실시간 네트워크 공연이었다. 세계 4개 도시(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각각 흩어져 있는 예술가(퍼포먼서, 음악, 영상)와 엔지니어, 감독이 실시간으로 소스를 쏘아 올려 공연을 펼쳤다. 시간 차이로 인해서 벌어질 어긋남까지 계산해 영상, 음악, 퍼포먼스를 행한 네트워크 공연이었다. 참으로 멋드러졌다. 앙기앵레벵, 바르셀로나, 부천, 광주에서 함께 쏘아 올린 소스가 한데 엉크러져 멋진 공연으로 버무려졌다. 20분여간 진행된 이 환상적인 어우러짐은 기술이 만들어낸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예술형식이었다.

봉사는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이 정 선
광주교육대학교
제6대 총장

‘봉사’는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을 말한다. 물질이나 재능기부, 후원, 그리고 몸으로 돕는 활동을 말한다. 엄밀하게는 생업이나 금전적 지원을 받고 하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나는 어떠했는가? 얼마나 봉사를 했고 왜 봉사를 하는가? 대학교수가 연구하고 학생들 교육하고, 교육현장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바꾸고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도 봉사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이다. 먼저는 이러한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나는 지난 25여년 교수생활을 통해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 대학에서 강의우수상, 연구상, 봉사상 등 소위 3관왕을 차지한 유일한 교수가 되었다.

재능기부와 시설과 단체 후원과 기부는 그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눔과 배품을 실천한 것은 대학총장직을 내려오면서부터이다. '바람꽃주거환경봉사회'와 함께 하면서 몸으로 하는 봉사를 시작한 거다. 적잖은 활동 중에서도 저장강박세대의 쓰레기더미 치우기가 참 힘들었다.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이틀 동안 치운 쓰레기가 35톤이나 된 세대는 오래도록 썩은 냄새가 옷에서 가시지 않듯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은 2017년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면서 부터이다. 회비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자생봉사단체이다. '자연'에게는 생태환경보존활동을, '사람'에게는 주거환경개선과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생태환경보존활동으로는 광주천과 지류 하천의 정화활동을 통한 생태환경보존 노력이 대표적인데, 그 동안 광주천 퇴치식물제거활동, 광산구 장록습지 생태환경정화활동, 남구 대촌천의 환경정화활동과 더불어 북구 석곡천 생태환경정화 활동을 들 수 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활동으로 우리가 했던 활동은 집수리, 도배장판, 정리수납 등 집정리, LED전 등교체, 이불세탁, 저장각박증 가정의 쓰레기 치우기, 독거노인의 고독사 후 집 치우기 등이다. 특히 한여름에 고독사 하신 지 일주일이나 지난 집을 치우는 일은 가장 힘든 경험이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우리 봉사회와 같이 한 봉사활동으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목욕지원과 동행행사 등 돌봄서비스, 연탄배달,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가마솥데이 운영, 무료급식봉사, 학교 앞 교통봉사, 농산물 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 그리고 수해지구 방문 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이외에서 내가 했던 봉사활동으로는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배식봉사(한빛여성봉사회, 천사봉사단, 사랑의 식당, 사랑의 쉼터, 노인복지타운, 북구청 무료배식차량 등), 좋은 세상만들기 캠페인, 경로시설 노래봉사, 시설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및 동행봉사, 장애인 돌봄, 복지관지원, 취약계층 연탄봉사, 초등학교를 위한 방과후 영어동화책 읽어주기, 결혼 가정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꾸며주기, 경로당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메이크업 봉사, 재능기부 특강 등이다. 동참하고 있는 협회나 사회단체 차원의 일회성 캠페인이나 이벤트성 활동은 제외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단체, 복지관, 시설에 대한 후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거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개인적으로 나의 봉사활동은 그 동안 어렵게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환원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도 적지 않다. 맨주먹 쥐고 서울행 완행열차를 타고 시작한 낯선 서울 대학생활 10년, 은사님과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겁도 없이 비행기표 한 장 들고 사고무친한 이국땅 미국에서 시작한 힘들고 어려웠던 유학생활 5년, 고마운 교수님들과 한인교포들, 그리고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연, 혈연, 지연이 거의 없던 이곳 광

주에서 내가 여기까지 25여년을 살아 온 것도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하게 된 것도 고마운 많은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2018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석패를 하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인사를 못한 미안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감사의 인사조차도 받지 못했더라도 내 가슴 속에 간직된 그 은혜는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 흘린 땀방울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지금의 나 된 것은 가족의 힘이 컸겠지만 고마운 이웃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가능이나 했겠는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생활하는 취약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그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려는 것은 거창한 보시나 자비가 아니라 그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사회에 되갚는, 일종의 작은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봉사활동은 최고의 자기수양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다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청소가 마음수련 활동인 것처럼 자기수양과 함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봉사의 강도에 비례하여 보람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봉사는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활동이 아니라 결국 자기수양이자 자기 마음 받을 가는 일이다. 그래서 봉사는 최고의 인성교육이 된다.

나는 소설가 이외수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를 참 좋아한다. '그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대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 홀로 서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봉사는 개인에게는 인성교육이지만 전체 사회적으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봉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화, 플랫폼의 가치

- 최고급 분청사기 생산지, 충효동 가마터 / 노성태
- “한복은 쉽다, 한복은 행복하다” / 정인순 / 김정희
- 명승 환벽당 / 이종철

최고급 분청사기 생산지, 충효동 가마터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



충효동 분청사기 도요지(2호 가마, 사적 제141호) 토기

충효동 가마터는 최고급 분청사기 생산지

고려 시대 중양에 진상하던 최고급 상감청자의 주 생산지가 강진이었다면, 최고급 분청사기의 주 생산지는 지금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한 금곡동·충효동 일대의 무등산 자락이었다.

무등산 도자기의 출발은 멀리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토기 그릇이나 신창동 출토의 소형 옹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원은 아무래도 강진의 청자일 수밖에 없다. 12세기, 고려 문화의 상징인 상감청자의 40% 이상을 생산하던 곳은 강진이었다. 그런데, 고려 말 강진의 청자는 자취를 감춘다. 30여 차례에 걸친 왜구의 침략으로 남해안은 거의 폐허가 되었고, 강진도 그 예외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진의 도공들이 경기도 여주 등 전국으로 흩어졌고, 그 중 일부가 금곡동·충효동의 무등산 서북 산록에 정착한다. 이들에 의해 14~17세기에 광주 가마 혹은 무등산 가마로 불리면서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구워낸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분청사기는 중양에 진상되는 최고급품이었다.

상감청자에 이어 출현한 분청사기는 회색 바탕흙 위에 백토진흙을 바른 다음 유약을 입혀서 구워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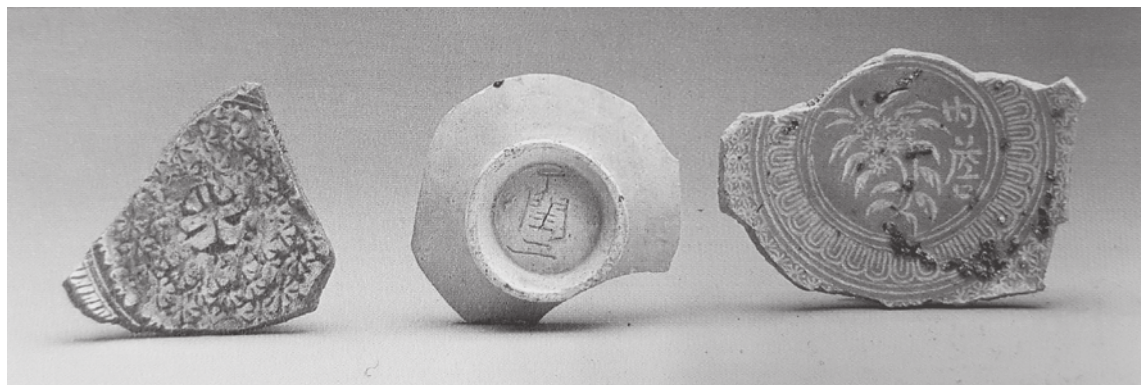
인데, 자유스러우면서 실용적인 형태와 인화기법, 박지기법 등 다양한 분장(粉粧) 기법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 무등산의 서북쪽 자락에는 분청사기와 백자를 구웠던 가마터가 배재 마을에서부터 광주호 상류인 버성골까지 10여개 이상 발견되고 있다. 이곳이 가마터로 적격이었음은 풍부한 재료와 연료 때문이었다. 가마터 위쪽의 고개 이름이 백토재로 불렸음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실재로 15세기 세종대왕 대에 이곳이 가마터였음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무진군 동쪽 이점(梨岾)에 자기소가 한곳 있고, 군 북쪽에 도기소가 한곳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금 충효동 가마터 근처 마한동안 무너진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버린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이 극적이다. 때는 1958년, 그 자리에 이웃하고 있던 충효초등학교(지금의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에 근무하던 신형모(당시 35세) 교사가 도자 파편을 주워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사용하곤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전라남도문화재보존위원회의 노석경(당시 42세)이 현장을 답사하고, 중앙에 보고한다. 그리고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이 이루어진다.



충효동 출토 분청사기 병

당시 동아일보는 1963년 7월 23일은 “이번 발굴 조사로 말미암아 학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박지문(剝地文, 그릇에 흰 칠을 하고 무늬를 새긴 후 무늬 이외의 백토를 긁어 낸 자기)과 조화문(彫花文, 흰 칠을 한 후 무늬를 새긴 자기)의 자기가 많이 나왔고 그 밖에 예상외로 수많은 명문(銘文) 자료가 드러나 학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번 발굴로 그릇의 용도, 납품처, 도공 이름 등이 알려져 도자기 연구 외에 다른 학문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가 되었다”라고 발굴 성과를 출토유물과 함께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자에서도 ‘수백 년



충효동 출토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편

만에 잠 갠 민족의 예술품’이라는 제목하에 ‘도자 예술 연구에 획기적 발견’이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한다.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충효동 가마가 갖는 의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발굴 결과 충효동 가마터는 왕실에 진상된 최고급의 분청사기 생산지였고, 조선 전기의 도자기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유적임이 확인된다. 곧바로 사적 제141호로 지정된 이유다.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두 번째 발굴이 이루어진다. 두 번의 발굴 결과 이 가마터에서는 세종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생산된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전 단계인 말기 청자와 그 후 단계인 백자 생산지임도 밝혀진다.

고려 말의 청자는 짙은 녹색의 어두운 색에 손쉬운 인화문을 사용한 것으로 그릇의 균형이 많이 흐트러지는 등 말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곡마을 주변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는 대단한 수준급이 분청사기가 생산된다. 특히 사적 141호로 지정된 충효동 가마터의 경우 하층

에서 갑발(匣鉢)을 씌워 구운 매우 세련된 최고급이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분청사기는 중앙이나 지방의 관아, 일부 상류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런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실용성이 강조되고 제작량이 증가한다. 이는 수요 집단이 서민층으로 확대되고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후기 분청사기는 유약, 바탕 흙, 제작수법 등이 거칠어지면서 서민용으로 전락하고, 대신 질 좋은 백자가 상류층에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자기도 유행을 탄 모양이다.

무등산 도자기에 명문이 새겨지다

그런데 무등산 가마터에서 출토된 그릇에 각종 명문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 재미있다. 무진내섬(茂珍內贍), 내섬시(內贍寺), 박덕지(朴德只), 광상(光上), 광이(光二), 정윤이(丁潤二), 광(光), ‘어존’ 등의 명문이 그것이다. 이들 명문은 납품처나 품질 표시, 제작자, 제작지 및 제작 연대를 알려주고 있어 분청사기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명문 ‘내섬시’는 납품하는 중앙 관청이 어디인지를 알려 준다. 명문 ‘박덕지’ 등은 당시 도공의 이름이다. 도공의 이름, 이는 도자기를 조잡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 요즘 농수산물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책임실명제인 셈이다. 명문 ‘광’과 ‘무진’은 제작지다. 또 귀얄로 분장된 마상배(馬上杯)의 바깥 면에는 한글로 ‘어존’이 음각되어 있다. 이는 도자기에 한글 명문이 새겨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지방에까지 한글 보급이 이루어졌음도 보여준다.

제작 시기와 관련된 명문으로는 무진내섬시의 ‘무진’과 성화(成化)라는 연호가 새겨진 묘지(墓誌)가 주목된다. 명문 ‘무진(茂珍)’은 1430년부터 1451년 사이에 사용된 광주의 옛 이름이며, ‘성화’는 1465년부터 1487년에 사용된 중국 명나라 현종의 연호이기 때문이다.

관청의 이름을 새기거나 제작자의 이름을 새긴 것은 품질 관리 및 관청의 도자기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제작지나 제작 시기를 밝히기 위해 지명이나 간지를 넣기도 했다. 이러한 명문은 도자기의 성격이나 내력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아닐 수 없다.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

600년 전, 지금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해진 금곡마을 일대에 강진의 청자 도공들이 모여든다. 30여 차례가 넘는 왜구의 침략 때문이었다. 이들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가마가 사적 제141호로 지정된 충효동 도요지를 비롯 그 일대에 10여개 이상 산재되어 있다. 1963년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 1991년 국립 광주박물관의 발

굴 조사 결과 확인된 4기의 가마터는 왕실에 진상된 고품질의 분청사기 제작지였고, 15세기 조선 시대 도자기의 시기적인 변화과정을 알려주는 주요 유적지임이 확인된다.

그중 전시실 바로 위의 보호각 안에 위치한 2호 가마는 아궁이에서부터 굴뚝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드러나 도자기 가마의 변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가마는 땅을 약간 파 들어간 반 지하식이며, 가마 벽은 진흙으로 축조되었다. 폭 1미터 내외의 도랑 자국이 경사도 13도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20.6미터 길이로 이어져 있다. 검붉게 그을린 불 자국이 6백년 세월을 뛰어넘었지만, 아직도 선연하다. 오른쪽에는 출입구인 옆문이 6개가 나 있다. 불을 지피는 봉통의 벽면은 돌로 쌓은 후 진흙을 발랐으며, 아궁이는 돌로 쌓았다.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은 불을 지폈던 입구 좌측면의 벽면에 쌓인 3.5미터 높이의 파편 퇴적구다. 9개의 층위를 가진 퇴적의 가장 아래층에서는 인화분청이, 바로 위에서는 귀얄분청이, 그리고 맨 위층에서는 백자가 출토된다. 이는 고려청자가 분청사기를 거쳐 백자로 발전되는 변화과정 뿐 아니라 인화분청에서 귀얄분청으로 변형되고 발전되었음도 알게 해준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를 거쳐 초기 백자로의 변천 모습을 보여준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를 비롯한 무등산 가마터 등은 문화수도 광주의 자산이며 ‘예향’으로 불리는 광주 문화 원형지가 아닐 수 없다.

복구문화원 인터뷰

한복은 쉽다, 한복은 행복하다”

정인순 대한민국 한복 명장을 만나다

글 / 김정희
광주문학 편집주간





“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이중 제일 먼저 나오는 옷(衣)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

북구문화원의 ‘찾아가는 문화교실’ 강사로 청소년들에게 한복의 기능과 유래, 입는 법 등을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그 속에 깃든 예의와 배려, 겸손함까지 전하는 정인순 대한민국 한복 명장을 만나 보았다.

선생님과 약속한 오전 10시 충장로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지 숨어 있던 아침 안개가 보도블럭에서 스멀스멀 피어 오르고 있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가게를 열고 계신 충장로 4가 한복 문화거리 옛 조흥은행 4거리 부근에서 ‘아리랑 주단’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빼곡하게 들어찬 옷감과 색색의 꽃잎 빛깔 천으로 지은 한복들이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미리 나와 계시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 주셨다. 회색과 푸른빛이 잘 조화된 단아한 한복 차림의 선생님은 처음 뵈는데도 부드러움과 빛이 나는 밝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 어색스러운 첫 만남에서 작은 수첩과 필기구를 가방을 뒤적여 꺼내 ‘신문’을 시작하려는 것은 매번 인터뷰 할 때 마다 느끼는 곤혹스러움이다. 그래

도 선생님이 내주신 배추색 방석에 엉겨주춤 앉아 시작한 대화는 형형색색의 한복집 분위기에 차츰 섞여 들었다.

△ 김정희(이후 김) : 처음 한복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 정인순(이후 정) : 중고등 학교 다닐 때부터 바느질 시간이나 수예 등의 가정시간을 아주 좋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디자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직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도 한 번도 힘들다 생각지 않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았 습니다. 아니 직업 선택을 아주 잘했구나 느낄 때도 많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복합니다. 한복집도 디자인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른 가게 에서 바느질부터 시작했어요 10년 쯤 바느질을 하다 제 가게를 열고 디자인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석주선 선생님께 사사도 받고 건국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한복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 :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는 것은 참 소중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의 칭호를 받으셨 는데요, 명장(名匠)은 한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자에 이른 분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워크 홀릭이라 할 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어떻게 되셨나요?

▽ 정 : 한복 명장은 우선은 한 곳에서 15년 이상 한복 사업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점수로 환산해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내용도 다양합니다. 전국에 12분 정도 계신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7~8분 정도입니다.

△ 김 : 사실 한복은 색상의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에 비해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아 바쁜 현대인들에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 아니고는 한복을 입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복을 평상복으로 입는 추세는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는데요 색상이 단순하면서도 고전 을 많이 가미시키지 않은 한복은 평상시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복의 대중화라고 할까요, 생활한복의 보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 : 요즘 나오는 한복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겨울엔 보온도 잘되고 여름엔 통기성 좋은 소재 로 만들면 몹시 시원합니다. 옷고름을 매는법도 아주 간편해졌어요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한복 을 선호합니다. 앞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곳 충장로 한복 문화의 거리 까지 한복을 입고 30분 남짓 걷는 관광 코스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지자체에 건의도 하고 방법

을 연구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방탄소년단’ 등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각광 받고 있잖아요. 한복문화 축제를 해마다 광주에서 열게 된다면 아시아문화전당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대면이면 좋겠지만 비대면 영상으로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당분간 코로나가 지속 된다고 해도 광주의 미디어 아트 작가나 다른 장르의 예술가 등과 손을 잡고 랜선으로 한복을 색색의 나비처럼 전 세계에 날린다면 정말 화려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큰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정: 네 소상공인으로는 처음으로 철탐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직접 상을 수여하러 오셨는데 한 길을 꾸준히 걷다 보니 이런 영광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으로 한복을 지어 내듯이 제 인생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 내심 주변에 감사도 드리고 새로운 도전에 용기가 납니다. 요즈음도 유물 유적이 발굴되는 곳에 먼저 달려가기도 합니다. 옛 전통 복식 문화를 연구하고 그런 것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김: 반백년을 전통 의상의 연구와 직업인으로서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한복의 자태에 감추어 두신 특별한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 역설적이지만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다 틈이 나면 걷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게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일이 그



만큼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복의 브랜드화나 산업화가 미래 세대의 일자리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비전을 가져 봅니다. 한복을 생각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김: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은 장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우리 옷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전통의 뿌리이고, 뿌리가 깊을수록 정체성의 혼란이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식주(衣食住) 중 제일 앞에 옷이 있음은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침선 수업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바느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일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정: 네 청소년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 수업 내용을 잘 연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실습을 하면 반응이 아주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국어인 한글처럼 우리 옷인 한복이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는 것이겠지요.

△김: 한복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우리 옷이다. 입었을 때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동양적인 생활윤리가 깃든 멋이 풍긴다. 저고리의 배래선과 도련의 곡선, 움직일 때에 생기는 동적인 선의 은은한 여백미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우리 옷을 즐기면서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 패션의 미래를 청소년들이 꿈꾸며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주는 대한민국 한복 명장 정인순 선생님의 끊임없는 열정을 응원하고 기대한다.



명승 환벽당(環壁堂)

이 종 철
한국문화학회/교육학박사

1. 개요

환벽당은 조선 명종 때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1501년~1572년)가 세운 남도지방의 전형적인 유실형(有室形)정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7호다.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일대로 가까이에는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가 흐르며 계곡아래 증암천(甞巖川)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장관을 이뤄 자미탄(紫薇灘)이라고도 불렸다.

“環碧堂”이라는 당호는 ‘사방이 푸름으로 둘러 쌓여 있다’는 뜻으로 장흥에 귀양와 계셨던 신숙주의 증손 영천자 신잠(靈川子 申潛)이 지었으며, 고경명(高敬命)의 유서석록(遺書石錄)에 의하면 환벽당을 벽간당(碧澗堂)이라고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환벽당의 제액(題額)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다. 가운데 2칸을 방으로 하여 앞쪽과 오른쪽을 마루로 칸 변형된 형식이다. 원래는 전통적 누정 형식이었으나 후대에 증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환벽당의 초기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의 『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성원((1525~1597)의 “서하당유고”에 “성산계류탁열도”등의 그림이 남아있다.

환벽당에 관한 시는 정철이 지은 2수가 있는데, 송강속집과 광주목지에 실려 있다.

환벽당 북쪽으로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증암천 너머에는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 소쇄공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있다. 이들 마을 주변에는 식영정(息影亭)과 면양정(倅仰亭), 송강정(松江亭), 은거를 위한 독수정(獨守亭)과 소쇄원(瀟灑園)등 10여개의 정자가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 였다. 환벽당 아래에는 송강과 사촌 김윤제가 처음 만난 곳이라는 전설이 깃든 조대(釣臺)와 용소(龍沼), 쌍송(雙松)이 있다.

면양정 송순은 ‘식영정과 환벽당’은 형제의 정자라고 하면서,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동(증암천)안에 세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고 하였다.

환벽당의 관리는 정철의 4대손 정수환(鄭守環)이 김윤제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여 현재 연일정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2. 환벽당의 주인 김윤제

김윤제(1501~1572)는 본관이 광산으로, 충효리에서 태어났다. 1528년 진사가 되고, 1532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교리 겸 춘추관(承文校理兼春秋官)으로 벼슬길에 나아간 뒤 홍문관 교리, 전주감영 병마절도사, 부안군수 등 13개 고을 원님을 지내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나주목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환벽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힘을 쓴 대부호(大富豪)이며 학자이다.

3. 환벽당에 걸린 편액들

예전에는 여러 개의 제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음각된 석천 임억령의 시 3수와 조자이의 시 편액 등 2개의 편액이 있다.

石川 林億齡의 詩(三首)

環碧堂(환벽당)

烟氣兼雲氣(연기겸운기) : 안개에다 구름기운 겹쳐졌는데
琴聲雜水聲(금성잡수성) : 거문고 소리 물소리 섞여 들리네.
斜陽乘醉反(사양승취반) : 노을 사양길에 취객 태워 돌아가는지
沙路竹輿鳴(사로죽여명) : 모랫길 대가마 소리 울리고 있네.

微雨洗林壑(미우세림학) : 하염없는 가는 비가 수풀 골짜기 씻어 주니
竹輿聊出遊(죽여요출유) : 대로 만든 가마 타고 나들이 하네
天開雲去盈(천개운거영) : 구름이 흩어지니 하늘이 열리고
峽斷水橫流(협기수행류) : 골짜기 벌어진니 물이 비껴 흐르네
白髮千莖雪(백발천경설) : 흰 머리는 천 줄기의 겨울날 눈발 같고
蒼松五月秋(창송오월추) : 푸른 솔밭은 오월에도 가을 같네

飄然蛻蟻穴(표현태의혈) : 개미굴 같은 지경 표연히 벗어나서
 笙鶴戲滌洲(생학희료주) : 피리 불고 학 타면서 영주(동해 가운데 신선이 산다는 곳)에
 서 놀고 싶네.

自得顏瓢樂(자득안표락) : 안회(공자의 제자)의 안빈낙도 스스로 얻고
 無心弈數遊(무심예구유) : 무심한 마음으로 예(하나라의 제후 궁술의명인)의 경지 노니네
 夢涼松月上(몽량송월상) : 소나무 위 걸린 달이 꿈속처럼 차가운데,
 窓濕水雲流(창습수운류) : 창가 촉촉히 물 위의 구름 흐르네
 村酒寧嫌薄(촌주영염박) : 촌주 박하다 어찌 탓하며
 山田敢望秋(산전감망추) : 산골 밭에 감히 풍년을 바랄건가,
 騎牛細雨裡(기우세우리) : 가랑비는 오는데 소를 타고 다니며,
 吾道付滄洲(오도부찬주) : 나의 도 창주(창랑주;동해 신선이 사는 곳)에 부쳐보노라

趙子以의 詩

過 松江先生舊居有感志懷仍贈 鄭達夫 (과 송강선생거유감지회잉증 정달부)
 송강 선생이 거쳐하신 옛날의 거처를 지나면서 느낀 바의 생각을 시로 읊어 정달부에게 주다.

丞相故墟何處尋(승상고허하처심) : 승상께서 사신 옛터 어느 곳에 찾을 손가
 鳴陽縣郭瑞湖潯(명양현곽서호심) : 명양(창평의 옛 이름) 고을 외곽 서호(창계천) 위에
 그의 유적 남았도다.

清名直節賢孫繼(청명직절현손계) : 맑은 이름 곧은 절개 어진 자손 이어가고
 餘韻遺風過客飲(여운유평과객음) : 남긴 여운 맑은 유평 지난 손이 흠모하네
 環碧亭空新易主(환벽정공신역주) : 비어있는 환벽정자 새 주인이 바뀌었는데
 棲霞堂在古猶今(서하당재고유금) : 옛날의 서하당은 아직까지 건재하네
 通家小子悲吟地(통가소자비음지) : 통가하는 이 소자가 찾아와서 읊조리니
 老木寒波無限心(노목한파무한심) : 늙은 나무 찬 물결에 이 마음이 설레이네.

崇禎後乙未仲冬 趙子以謹稿

4. 환벽당에서 교유한 석학들

환벽당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며 일류 문인들인 송순, 임억령, 양산보, 김인후, 기대승, 고경명 등이 드나들던 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호남사람으로 기묘사화(己卯土禍)와 을사사화(乙巳土禍)를 거치면서 시대의식을 함께 했다. 이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송순(宋純)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부정자를 시작으로 1520년(중종 15)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마친 뒤, 1524년(중종 19)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가 되고 1527년(중종 22)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1533년(중종 28)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양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송순은 1537년(중종 32)김안로가 사사된 뒤 5일 만에 홍문관부응교에 제수되고, 다시 사헌부집의에 올랐다. 이어 홍문관부제학, 충청도어사 등을 지냈고, 1539년(중종 34)승정원우부승지에 올라 4월 명나라의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오자 선위사가 되어 서행(西行)하였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사간원대사간 등의 요직을 거쳐 50세 되던 해인 1542년(중종 37)윤원형과 황헌(黃憲) 등에 의하여 전라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547년(명종 2)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중종실록』을 찬수하였다. 그해 5월에 주문사로 북경에 다녀와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1550년(명종 5) 대사헌·이조참판이 되었으나, 진복창(陳福昌)과 이기(李芑) 등에 의하여 사론(邪論)을 편다는 죄목으로 충청도 서천으로 귀양 갔다. 이듬해에 풀려나 1552년(명종 7)선산 도호부사가 되고, 이 해에 면양정을 증축하였다. 이 때 기대승이 「면양정기」를 쓰고 임제(林悌)가 부(賦)를 쓰고, 김인후(金麟厚)·임억령(林億齡)·박순(朴淳)·고경명(高敬命) 등이 시를 지었다. 이후 전주부윤과 나주목사를 거쳐 1562년(명종 17) 70세의 나이로 기로소(耆老所)에 들고, 1568년(선조 1)한성부좌윤이 되어, 『명종실록』을 찬수하였다. 이듬해 한성판윤으로 특별 승진하고 이어 의정부우참찬이 된 뒤, 벼슬을 사양하여 관직생활 50년 만에 은퇴하였다. 송순은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특히 음물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고, 풍류를 아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일컬어졌다. 일찍이 박상(朴祥)과 송세림(宋世琳)을 사사하였고, 교우로는 신광한(申光漢)·성수침(成守琛)·나세찬(羅世縝)·이황(李滉)·박우(朴祐)·정만중(鄭萬鍾)·송세형(宋世珩)·홍섬(洪暹)·임억령 등이 있다. 문하 인사로는 김인후·임형수(林亨秀)·노진·박순·기대승·고경명·정철(鄭澈)·임제 등이 있다. 면양정은 그가 41세 되던 해인 1533년(중종 28) 담양의 제월봉 아래 세운 정자로서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형성하였다. 여기에는 임제·김인후·고경명·임억령·박순·이황·소세양(蘇世讓)·윤두수(尹斗壽)·양산보·노진 등 많은 인사들이 출입하며 시 짓기를 즐겼다. 면양정가단은 그 후에 나타난 호남의 성산가단(星山歌壇), 영남의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노가재가단(老稼齋歌壇) 등의 선구이며, 영남의 가단이 전문 객 중심이라면 면양정가단은 사대부 출신의 문인 객이 중심이었다. 특히 송순은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 생활을 하면서 자연예찬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지음으로써 강호가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면양정삼언가」·「면양정제영(俛仰亭題詠)」 등 수많은 한시(총 505수, 부 1편)와 국문시가인 「면양정가」 9수, 「자상특사황국옥당가(自上特賜黃菊玉堂歌)」·「오륜가」 등 단가(시조)

20여 수를 지어 조선 시가문학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집으로는 『면앙집(倅仰集)』이 있다. 담양 구산사(龜山祠)에 신주가 모셔졌다.

2) 임억령(林億齡)

1516년(중종 11) 진사가 되었고, 1525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부교리·사헌부지평·홍문관교리·사간·전한·세자시강원설서 등 여러 직위에 임명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 때 금산군수 역임 시 동생 임백령(林百齡)이 소운 일파에 가담하여 대운의 많은 선비들을 추방하자, 자책을 느끼고 벼슬을 사퇴하였다. 그 뒤 임백령이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錄券)을 보내오자 분격하여 이를 불태우고 해남에 은거하였다. 뒤에 다시 등용되어 1552년 동부승지·병조참지를 역임하고, 이듬해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557년 담양부사가 되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도량이 넓고 청렴결백하며, 시문을 좋아하여 사장(詞章)에 탁월하였으므로 당시의 현인들이 존경하였으나 이직(吏職)에는 적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신(史臣)들이 평하였다. 전라남도 동북의 도원서원(道源書院), 해남의 석천사(石川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석천집』이 있다.

3) 양산보(梁山甫)

1519년(중종 14)에 중종(中宗)이 ‘숙흥야매잠(夙興夜寐)’으로 친히 유사(儒士)들을 시험하였는데 양산보(梁山甫)가 나이 17세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대관(臺官)이 뽑은 자가 많다고 하여 삭제하도록 주청하였으므로, 임금에 애석하게 여기고 불러다가 위로하며 물품을 하사하였다. 그해 겨울,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는데, 양산보의 스승 조광조가 화수(禍首)로 몰리게 되자 양산보가 통분(痛憤)해 하며 그날로 남쪽으로 돌아왔다. 살고 있는 곳이 우아하게 수석(水石)의 경치가 좋았으므로, 그 가운데다 집을 짓고 이름을 ‘소쇄원(瀟洒園)’이라 하고 자호(自號)를 ‘소쇄옹’이라 하였다. 그리고는 은둔 생활을 하며 의(義)를 행하면서 일생을 마치고자 하였다.

중종 말엽에 중앙과 지방에 전교를 내려 유일지사(遺逸之士)를 모두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에 창평현령(昌平縣令) 이수(李洙)가 평소 양산보를 공경하였던 터라 그 명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양산보가 극력으로 사양하여 추천하지 못하였다. 1552년(명종 7)에 다시 추천자 명단에 올랐으나 공이 끝내 나아갈 뜻이 없었다. 1557년(명종 12) 3월 20일에 병으로 55세의 나이로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났다.

4) 김인후(金麟厚)

1519년(중종 14)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다.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이황(李滉)과 교우 관계를 맺고 함께 학문을 닦았다.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으며, 이듬 해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이 되었다. 1543년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세자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맡았다. 또한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진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다. 그 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1544년(중종 39) 중종이 즉자 제술관(製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왔으나, 1545년(인종 1) 인종이 죽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인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전적·공조정랑·홍문관교리·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김인후의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김인후는 당시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하여, 이기(理氣)는 혼합되어 있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분명하므로 태극과 음양은 일물(一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였다. 또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함으로써,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김인후는 수양론에 있어서는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노수신(盧守愼)과 함께 숙흥야매잡해(夙興夜寐箴解)를 논한 내용을 보면, 마음이 일신을 주재한다는 노수신의 설을 비판하고,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해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였다. 김인후는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鄭澈)·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諫)·조희문(趙希文)·오건(吳健) 등이 있다. 시문에 능해 10여 권의 시문집을 남겼으나 도학에 관한 저술은 많지 않다. 저서로는 『하서집(河西集)』·『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5) 고봉 기대승

1527년(중종 22) 광주 광산구 소고룡리(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에서 아버지 기진(奇進)과 어머니 진주 강씨(晉州姜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려시대의 재상 기순우의 14대손이며, 순제의 황후 기황후의 친정아버지 기자오는 그의 11대조 기필선의 둘째 형 기운숙의 증손자다.

1546년(명종 원년) 가을 향시(鄉試)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고, 1549년(명종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1557년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발췌해 주자문록 3권을 편찬했다.

1558년(명종 13) 7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가던 도중 장성의 하서 김인후와 태인의 일재 이항을 배알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논하였다.

그해 10월 식년 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었다. 그 달에 서울에서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天命圖)를 얻어 보고, 경저(京邸)에 와 있던 퇴계 이황을 찾아가 의견을 나누었다.

1562년(명종 17)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을 임명되고, 1563년(명종 18) 독서당(讀書堂)에 선발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해 3월 승정원 주서(注書)와 사정(司正)에 임명되었다. 8월 신진사류의 영수(領袖)로 지목되어 훈구파 및 외척이었던 명종비 인순왕후의 외삼촌 이량의 주도하에 삭직(削職)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을 당하였으나, 종형 기대항(奇大恒, 복재 기준 아들)의 상소로 12월 복직하여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다. 이듬해 2월 검토관이 되어 언론의 개방을 역설하였다.

1565년(명종 20) 병조좌랑, 이조정랑을 거쳐, 이듬해 사헌부지평·홍문관교리·사헌부헌납·의정부사인을 역임하였다. 1567년(명종 22)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에 충용(充用)되고, 이어서 장령, 의정부 사인, 홍문관 응교가 되었다.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사헌부 집의(執義), 홍문관 전한(典翰)겸 예문관 응교(應敎)에 제수되어, 기묘사화와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조광조·이언적 등에 대한 추존을 건의하였다.

1568년(선조 1) 직제학(直提學),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시독관(侍讀官)을 겸직하였다. 1570년(선조 3) 2월 을사위훈(乙巳僞勳)을 논할 때, "을사(乙巳)의 녹훈(錄勳)이 위훈(僞勳)이 아닐 뿐더러 또 선왕이 이미 정한 것이니 삭탈할 수 없다"고 하여 삭탈을 주장한 사람들의 반발을 사 대사헌(大司憲)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1571년(선조 4) 4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1572년(선조 5) 3월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이어 종계변무(宗系辨誣)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선발되어 주문(奏文)을 썼다. 9월에 대사간(大司諫)·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내다가 병을 얻어 귀향하던 중 11월 초하루날에 46세의 나이로 전라북도 고부에서 별세했다.

제자로는 정운룡(鄭雲龍)·정철·고경명·유근(柳根)·최경화·최시망(崔時望)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고봉집》, 《주자 문록》, 《논사록》, 《왕복서(往復書)》 등이 있다.

6) 고경명(高敬命)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제1위로 합격, 진사가 되고, 1558년 왕이 직접 성균관에 나와 실시한 시험에서 수석해,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같은 해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고, 이어서 공조좌랑이 되었다. 그 뒤 형조좌랑·사간원정언 등을 거쳐 호당(湖堂)에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561년 사간원헌납이 된 뒤 사헌부지평, 홍문관의 부수찬·부교리를 거쳐 1563년 교리가 되었다. 이 때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인 이조판서 이량(李樾)의 전횡을 논하는 데 참여하고, 그 경위를 이량에게 몰래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울산군수로 좌천된 뒤 파직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와 고전을 탐독하거나 자연과 벗 삼아 산수를 유람하면서 『유서석록(遊瑞石錄)』을 저술하였다. 1581년(선조 14) 영암군수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이어서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김계휘(金繼輝)와 함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서산군수로 전임되었는데

데, 명사원접사(明使遠接使) 이이(李珣)의 천거로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이어서 증부시첨정에 임명되었다. 1583년 한성부서윤·한산군수를 거쳐 예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사복시첨정이 된 뒤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거쳐 순창군수로 재직 중 1588년 파직되었다. 1590년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로 다시 등용되었으며, 이듬해 동래부사가 되었으나 서인이 실각하자 곧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고 왕이 의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각처에서 도망쳐온 관군(官軍)을 모았다. 두 아들 고종후(高從厚)·고인후(高因厚)로 하여금 이들을 인솔, 수원에서 왜적과 향전하고 있던 광주목사(廣州牧使) 정윤우(丁允佑)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라우부사 김천일(金千鎰), 전 정언 박광옥(朴光玉)과 의논해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6,000여 명의 의병을 담양에 모아 진용을 전라좌도 의병대장에 추대되어 종사관에 유평로(柳彭老)·안영(安瑛)·양대박(楊大樸), 모량유사(募糧有司)에 최상중(崔尙重)·양사형(楊士衡)·양희적(楊希迪)을 각각 임명했다. 그리고 전라도 의병군의 결성과 왜적을 격퇴하겠다는 출사표를 양산숙(梁山肅)·곽현(郭玄)으로 하여금 서해를 경유해 조정에 전달하도록 하고, 6월 1일담양을 출발해 복산을 개시했다. 의병군이 태인에 이르렀을 때, 정윤우에게 관군을 인계하고 돌아온 고종후를 만나 그에게 다시 격문을 휴대하고 금구(金溝)·임피(臨陂) 등지에서 병기와 군량을 수집하도록 했고, 또 제주목사 양대수(楊大樹)에게 전마(戰馬)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6월 13일 전주에 도착해 고인후에게 수백 명을 인솔하고 무주·진안 등의 요로에 복병을 배치해, 영남에서 호남으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도록 했다. 22일 전주에서 여산으로 진을 옮겨 이곳에서 고종후·고인후와 합류하고, 다시 호서·경기·해서 지방에 창의구국(倡義救國)의 격문을 발송했다. 27일 은진에 도달해 왜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중, 황간·영동 등지에 있는 왜적이 금산을 점령하고 장차 전주를 경유, 호남을 침범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곡창인 호남을 왜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당초의 북상 계획을 변경, 7월 1일연산(連山)으로 회군했다. 이곳에서 충청도 의병장 조헌(趙憲)에게 서신을 보내어 10일 형강(荊江)을 건너 합세해 금산의 왜적을 공격할 것을 제의한 뒤, 9일 진산을 경유해 금산에 도착, 방어사 곽영(郭嶸)의 관군과 좌·우익으로 진을 편성했다. 이날 의병 중에서 정예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적의 본진을 공격했으나, 적의 굳센 저항과 관군의 소극적 태도로 퇴각하고 말았다. 10일 곽영과 합세해 왜적과 대회전을 시도하기로 하고 800여 명의 정예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왜적은 먼저 약한 관군을 일제히 공격했다. 이에 겁을 낸 관군은 싸울 것을 포기하고 앞을 다투어 패주했으며, 이에 사기가 떨어진 의병군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고경명은 후퇴해 다시 전세를 기다리며 후일을 기약하자는 주위의 충용을 뿌리치고 “패전장으로 죽음이 있을 뿐이다.”고 하며 물밑듯이 밀려오는 왜적과 대항해 싸우다가 아들 고인후와 유평로·안영 등과 더불어 순절했다. 왜적이 퇴각하기를 기다렸다가 유체를 수렴해 금산 산중에 매장했으며, 10월화순의 흑토평(黑土坪)에 장사지냈고, 그 뒤 장성의 오동촌(梧桐村)에 이장했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남달리 어른스러워, 백인걸(白仁傑)이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있을 때 고경명을 보고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뒤에 의정부좌찬성에 추증, 광주의 포충사(褒忠祠),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종용사(從容祠),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시·글씨·그림에 능했으며, 저서로는 시문집인 『제봉집』, 속집(續集)·유집(遺集), 무등산 기행문

인 『서석록(瑞石錄)』, 각처에 보낸 격문을 모은 『정기록(正氣錄)』이 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5. 김윤제의 제자들

환벽당에서 가르친 김윤제의 제자로는 송강 정철과 서하당 김성원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철(鄭澈)

어려서 인종의 숙의(淑儀)인 누이와 계림군(桂林君) 이유(李瑠)의 부인이 된 막내누이로 인해 궁중에 출입했다. 이때에 같은 나이의 경원대군(慶源大君)과 친숙해졌다. 10세 되던 해인 1545년(인종 1, 명종 즉위)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관련돼 아버지는 함경도 정평(定平)으로, 만형 정자(鄭滋)는 광양(光壤)으로 유배당했다. 곧이어 아버지만 유배가 풀렸다. 12세 되던 1547년(명종 2) 양재역 벽서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을사사화의 여파로 아버지는 경상도 영일(迎日)로 유배됐고, 만형은 이때 장형(杖刑)을 받고 유배 가던 중에 32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이 시기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에서 생활을 했다. 1551년(명종 6) 원자(元子) 탄생의 은사(恩赦)로 아버지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양 창평 당지산(唐旨山) 아래로 이주하게 된다. 이곳에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여년을 보냈다. 여기에서 임억령(林億齡)에게 시를 배우고 양응정(梁應鼎)·김인후(金麟厚)·송순(宋純)·기대승(奇大升)에게 학문을 배웠다. 또, 이이(李珥)·성혼(成渾)·송익필(宋翼弼) 같은 큰 선비들과도 사귀었다. 1552년(명종 7) 17세에 문화 유씨(文化柳氏) 유강항(柳強項)의 딸과 혼인하여 4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1560년(명종 15) 25세 때 「성산별곡」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성산(星山) 기슭에 김성원이 구축한 서하당(棲霞堂)과 식영정(息影亭)을 배경으로 한 사시(四時)의 경물과 서하당 주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1561년(명종 16) 26세에 진사시 1등을 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성균관전적 겸 지제교를 거쳐 사헌부지평에 임명됐다. 이어 좌랑·현감·도사를 지내다가 1566년(명종 21) 31세에 정랑·직강·헌납을 거쳐 지평이 됐다.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32세 때 이이(李珥)와 함께 호당(湖堂)에 선출됐다. 이어 수찬·좌랑·종사관·교리·전라도 암행어사를 지내다가 40세인 1575년(선조 8) 시묘살이를 끝내고 벼슬길에 나가 직제학 성균관사성, 사간 등을 역임했다. 이 무렵 본격화된 동서분당에 따른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벼슬을 버리고 담양 창평으로 돌아갔다. 창평에 있을 때에 선조로부터 몇 차례 벼슬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43세 때인 1578년(선조 11)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승진하여 조정에 나아갔다. 그 해 11월 사간원대사간에 제수되나 진도군수 이수(李銖)의 뇌물사건으로 반대파인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1580년(선조 13) 45세 때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관동별곡」과 「훈민가(訓民歌)」 16수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의 재질을 발휘했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도승지·예조참판·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83년(선조 16) 48세 때 예조판서로 승진하고 이듬 해 대사헌이 됐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음해(1585)에 사직, 고향인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생활을 했다. 이때 「사미인곡」·「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시조·한시 등 많은 작품을 지었다. 54세 때인 1589년(선조 22)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서인의 영수로서 최영경(崔永慶) 등을 다스리고 철저히 동인들을 추방했다.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고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에 봉해졌다. 56세 때 왕세자 책립문제인 건저문제(建儲問題)가 일어나 동인파의 거두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다가 이산해의 계략에 빠져 혼자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했다. 이에 신성군(信城君)을 책봉하려던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대신으로서 주색에 빠졌으니 나랏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논척(論斥)을 받고 파직됐다. 명천(明川)에 유배됐다가 다시 진주(晋州)로 옮기라는 명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강계(江界)로 이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592년(선조 25) 57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나 평양에서 왕을 맞이하고 의주까지 호종, 왜군이 아직 평양 이남을 점령하고 있을 때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체찰사를 지내고 다음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동인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의 송정촌(松亭村)에 우거(寓居)하다가 58세로 별세했다. 작품으로는 「성산별곡」·「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 4편의 가사와 시조 107수가 전한다. 시조는 『송강별집추록유사(松江別集追錄遺詞)』 권2에 「주문답(酒問答)」 3수, 「훈민가」 16수, 「단가잡편(短歌雜篇)」 32수, 「성은가(聖恩歌)」 2수, 「속전지연가(俗傳紙鳶歌)」 1수, 「서하당벽오가(棲霞堂碧梧歌)」 1수, 「장진주사(將進酒辭)」 등이 실려 있다. 상당히 중복되기는 하나 성주본(星州本)과 이선본(李選本) 『송강가사(松江歌辭)』에도 많은 창작시조가 실려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대체적으로 임금을 사모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 외에도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하는 인간미 넘치는 작품, 강호 산수의 자연미를 노래한 작품이 있다. 그리고 선취(仙趣)적 기풍과 멋스런 호방함을 담은 작품 등 폭넓은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송강집』과 시가 작품집인 『송강가사』가 있다. 전자는 1894년(고종 31)에 간행한 것이다. 후자는 목판본으로 황주본(黃州本)·의성본(義城本)·관북본(關北本)·성주본(星州本)·관서본(關西本)의 다섯 종류가 알려져 있다. 그 중 관북본은 전하지 않고 나머지도 책의 일부만 전한다. 필사본으로는 『송강별집추록유사』와 『문청공유사(文淸公遺詞)』가 있다. 창평의 송강서원, 영일의 오천서원(烏川書院) 별사에 제향됐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2) 김성원(金成遠)

자는 강숙(剛叔)이며 호는 서하당(棲霞堂) 또는 인재(忍齋)이다.

광주의 충효리(옛 석저촌)에서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낸 아버지 김홍익(金弘翼)과 어머니 해주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송강 정철의 처외재당숙(妻外再堂叔)이다.

6세가 되던 중종 26년(1531) 아버지를 여의었고, 인종 원년(1545) 서산유씨(瑞山柳氏, 柳泗의 딸)와 결혼하였다. 장인인 유사와 하서 김인후에게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다.

32세 때(명종 12년)는 당시 담양 부사로 있던 석천 임억령을 만나 학문을 배웠고 망년지교(忘年之交)를 하였다고 한다. 33세에는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성산의 서하당과 식영정을 배경으로 더욱 자연과 서적에 침잠하였으며, 여러 문인들과도 활발히 교유하였다. 김인후와 임억령을 스승으로 모시는 한편 고봉 기대승·제봉 고경명·송강 정철 등과 도의의 사귀를 두터이 하였는데, 특히 임억령·고경명·정철과는 성산(星山)의 사선으로 만났다고 한다. 따라서 이 때부터 서하당과 식영정을 배경으로 한 여러 문인들의 시작 활동이 이어지게 되며, 「식영정이십영(息影亭二十詠)」을 지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북의 가관(假官)이 되어 의병 활동에 나섰으며, 뒤이은 정유재란 때에 무등산을 거쳐 동북의 모후산으로 피신하던 중 왜적에 의해 고령의 노모와 함께 72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로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를 남겼다.







문화, 스토리를 품다

- 인생의 의미를 경작하는 토양으로서 인문학 / 성진기
- 나주 문화 탐방기 / 전숙
- 이주여성의 삶과 문학 / 김을현

인생의 의미 경작으로서 인문학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물건에는 가격이 있다. 물건은 흥정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른바 인격은 임의적 조건을 통해 가감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만약에 인격이 상품화된다면 인간의 세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인문학은 사물의 값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묻고 그 답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진리 즉 진실과 사실에 눈독을 들인다. 인문학은 또 바람직한 인간행위의 조건으로서 선과 악의 판별에 나선다. 그리고 인문학은 조화로운 감정의 성숙을 위해 미와 추의 근거를 천착한다. 더 나아가 인문학은 종교적 물음인 성과 속을 규명에 참여한다. 이 이상을 실현키 위해 과학, 예술, 종교 등 다른 학문의 성과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협력한다.



우리가 일상을 무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수시로 묻고 산다. 이런 물음들에 대한 자기다운 답들은 매우 효과적이다. 삶의 이유나 의미가 투철하면 삶이 건강하나 그렇지 못하면 삶이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삶을 저버리기도 한다. 삶의 현실과 지향하는 의미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자신의 의미 깃발이 선명하면 삶의 역경은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삶은 의미가 생사여탈의 관건이 된다. 인문학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경작하는 토양이다.

문학은 인문학의 가장 인기 있는 분야다. 수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과 해후한다. 우유부단하다는 폄하와 다르게 주인공 ‘햄릿’의 근원적 고뇌와 직면하면서 자신의 고뇌를 발견한다. ‘돈키호테’를 읽으며 무명의 시골 남자의 위대한 용기를 체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싸움, 불의와 사악을 분쇄하겠다는 위대한 도전을 익힌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삶의 답안지를 써내는 것이다.

역사학 또한 역사를 주도해 가는 인간군의 면모와 다양한 시대가 옹호하고 때로는 배격한 인간의 이상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시대가 지향하고 존중한 이념들은 모두 그 시대를 책임진 인간들의 시대정신이었을 것이다. 프랑스혁명이란 역사적 사건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행동이다. 어떤 역사든 그 시대를 살 아간 인간들의 가치 실현의 구현이다. 따라서 역사학이란 방법론상의 차이를 가진 인간학일 것이다.

인문학의 막강한 분야로서 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학이라고 할만하다. 칸트의 간파처럼 인간 이성의 과제를 하나로 종합하면 ‘인간학’이 된다.

철학의 주제도, 역사도 인간의 문제로 돌아간다. 자연의 문제든, 신에 대한 관심이든 철학의 주제는 인간의 주위를 맴돈다. 철학은 더 세분한 영역을 가지는데, 윤리학, 미학, 종교철학, 그리고 논리학이 그것들이다. 논리학은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학문의 지위를 갖기 위해 필수적이다.

한 개인이 수천 가지의 삶을 살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장군으로 살거나 질병으로 사는 일이 제멋대로 되지 않는다. 또 누군가 살인범으로 감옥에 가거나 성직자가 되어 기도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요즘 온 나라를 소란케 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보는 삶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페이지의 소설 속에서, 한 편의 시 속에서 다양한 삶의 파노라마를 체험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자신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경지, 위대한 세계를 맞볼 수 있으며 동시에 천박한 몰락을 체험한다.

역사학을 과거지사 기록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다. 역사는 인간의 축적된 강인한 욕망과 이상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각 시대가 추구한 이념과 그것을 주도한 주체들의 행동방식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다. 이를 통해 당대의 역사의식을 창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역사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를 읽고 배우는 것이다.

철학은 알려진대로 ‘지혜를 사랑’ 하는 학문이다. 지혜(wisdom)는 지식(knowledge), 진리(truth)의 의미를 함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 인데, 철학의 사랑은 동경이다. 아직 수중에 없는 것, 미완을 벗어난 것, 참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마냥 착한 것에 대한 동경이다. 이렇게 철학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살하는 경지다. 어떤 까닭인지 인간은 이러한 동경 없이 살지 못한다.

철학은 인간의 고유한 동경을 훈련하는 학문이다. 어떤 인간이든 자신의 삶에서 이 고귀한 동경을 차단한다면 인간답게 살기 어렵다. 동경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실상이 되고자 한다. 이천오백 년의 역사 속에 부침한 인간의 동경의 알파와 오메가를 철학을 통해 학습한다.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인문학은 인간 실존적 삶을 치유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이 허약하고 삶의 방식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특히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평생을 산다. 더구나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질병처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거기다 빈곤, 전쟁의 고통 역시 한계상황들이다. 이런 실존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 답을 얻을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절망하는 인간에게 의미나 이유를 찾게 함으로써 절망을 치유할 수 있다는 철학자가 등장한다. 니체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 인간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뒤를 이어 빅터 프랑클은 ‘의미요법’을 제안한다. 유태인 의사로서 절망적 상황인 수용소 생활을 겪으며 체득한 이론이다. 모든 존재는 살려는 의지, 생명에의 의지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에게 부여 돼 있는 인간의 존엄한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



다.

인문학을 어떻게 공부할까? 가장 우직한 방법은 인문학 분야 책을 읽는 방법이다. 물론 인문학 밖의 독서를 배격하지 않는다. 이 독서는 요령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천천히 자기 생각을 동원해 읽어야 한다. 약탈식 독서는 곤란하다.

광주에도 책을 읽거나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이 많다. 이런 공간은 함께 토론을 겸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필자가 설립한 인문학 연구 공간 〈Cafe Philosophia〉도 25주년을 맞았다. 기본 커리큘럼은 ‘서양철학 산책’ 과 니체 주저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다. 지난해 12월 은암미술관의 후원으로 2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 동구청이 ‘인문대학’ 시스템을 갖추어 1년 내내 주민을 위한 인문학 교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원에서도 인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특별한 얘기를 보태자면 저희가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는 음악공연 및 연극공연을 곁들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민들과 인간적 정서를 교류하고 있다.

이런 인문학의 열기를 바탕으로 ‘민주의 도시’인 광주가 정신적 외연을 넓혀 ‘인문의 도시’ 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나주탐방기 고샅마다 사운대는 천년의 향기, 나주



전 숙
시인

- 2007, 《시와 사람》신인상
- 시집『나이드 호미』외 4권
- 제9회 고운최치원문학상
- 전국계간지 우수작품상
- 한국PEN 문학상(31회)



나주읍성 고샅에서 나주목의 문화를 누리다

나주에 가면 어쩐지/할머니의 그것처럼 부드럽게 늘어진 설움이/외손주의 그것처럼 순하고 달콤한 웃음이/동구 밖까지 마중 나와 있을 것만 같아서(줄시 「나주에 가면」 부분)

나주는 지구촌의 대표적인 슬로우시티다. 일상의 번다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나무늘보처럼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마을마다 일일이 둘러 가는 영산강 굽이처럼 자애로운 도시다. 예음길을 걷듯이 여유롭게 나주읍성의 고샅을 휘돌면 그곳이 바로 천년 고도의 속살이다. 버들이처럼 물 한 대접 받쳐 들고 왕건 같은 손님을 기다리는 나주를 즐기면 된다. 뒤꿈치가 음악처럼 가벼운 나주사람들은 언제든지 손님을 군왕처럼 대접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주는 새댁처럼 다소곳하고 비단처럼 부드럽고 저녁처럼 따뜻하고 친절처럼 편안한 도시다. 고대국가인 마한의 중심이었고 고려와 조선의 목사골로 옛 유적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나주읍성권에는 날아갈 듯한 처마가 나주의 날개로 웅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즐비하다. 반경 2km이내의 지역에 나주읍성의 사대문(동점문, 서성문, 남고문, 북망문)과 성곽, 나주목의 객사인 금성관, 동헌의 정문인 정수루, 나주목사의 살림집인 목사내아(금학헌)가 유지 복원되어 옛 나주목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균관 복원의 원형이 되었던 우리나라 향교의 대표인 나주향교 대성전과 일제강점기 땡기머리사건으로 전국학생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구)나주역사도 그때 그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있다. 지금도 나주목사골시장, 영산포풍물시장, 남평시장에 5일장이 열리면 객이 어우러져 축제처럼 흥성거린다.

역에서 내리면 버들이처럼 살가운 친구가/버들잎 띄운 물 한 대접/반가움으로 받쳐 들고 서 있을 것 같아서/쪽물처럼 물색 깊은 연인이/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을 것도 같아서(줄시 「나주에 가면」 부분)

진산인 금성산은 해발고도가 비록 451m이지만 고려 8대 명산에 그 이름을 올릴 정도로 웅숭깊은 명산이다. 그곳에는 다보사와 심향사 등 천년 고찰이 포식하게 자리 잡고 있다. 빗가람 혁신도시는 나주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천년을 건너온 옛 문화와 신문물이 융합발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주를 강보처럼 두르고 천년을 함께 흐른 영산강에는 포구로서의 옛 영화를 추억하는 황포돛배가 관광용으로 운행 중이다. 나주는 나주배, 나주곰탕, 홍어삼합, 구진포장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려한 레시피가 있어 맛의 본향으로도 뒤지지 않는다.

나주 지방에 현존하는 누정(樓亭)의 수는 무려 60개다. 나주 지방의 누정문화는 그 자체로 선비의 고장임을 입증한다. 나주는 일찍부터 아름다운 서정문학이 풍성하였고 한시를 비롯한 시조, 가사 등 다양한 시가문학이 흥하였다. 그래서 정가신, 신숙주, 임제, 최부 등 걸출한 선비들과 임진왜란 때의 뛰어난 의병장 김천일 장군을 위시하여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장군 등 구국에 앞장선 선열들이 즐비한 애국의 고장이다. 거기에 독널 문화를 누렸던 마한의 고분이 여전히 장엄하게 올려다 보이는 곳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적멸보궁 한 채씩을 차지한 마한의 영혼들이 아직도 가장 편안한 쉼을 영유하고 있는 터전이라고나 할까?

완사천에서 천년의 사랑에 홀리다

나주시 송월동의 흥룡 마을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왕건이 오색안개 자욱한 완사천을 지나는데 갑자기



목이 몹시 말랐다. 샘을 내려다보니 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왕건이 물을 청하자 처녀는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물을 떠주었다. 왕건이 연유를 묻자 급히 물을 마시다가 체할까 염려하여 버들잎을 띄웠다고 대답하니 왕건은 처녀의 충명함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처녀는 후에 장화왕후에 오르고 아들이 바로 고려 2대왕 혜종이다. 곱디고운 비단에 어여쁜 수를 놓아 천년의 사랑을 누리누리 펼치오니 장화왕후 스란치마 사락사락 걸어오오. 사대문 물마루에 청사초롱 높이 걸고 하늘 불러 차일 친 혼인잔치 그림나니 옛 고살 돌멩이도 그리움 그윽하오. 아름드리 버드나무 휘늘어진 인연에 천년의 사랑이 오늘에도 꽃피리다. 천년이여, 그대 가슴 아득한 향기에 바람도 홀리오니...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 물들다

내가 너 잠 쫘 잔 누에라면/푸른 잠에서 깨어날 때 /뽕잎의 통통한 향기가 살랑일 것도 같아서(줄시 「나주에 가면」 부분)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던 나주는 영산강유역을 배경으로 쪽과 뽕나무가 잘 자라 일찍부터 천연염색과 비단 생산의 중심지였다. 조선 무명의 정수인 셋골나이(나주의 전통길쌈:12세목)의 고장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인 염색장이 후학을 기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 접어들면서 맥이 끊어져가던 나주천연염색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나주는 2006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을 쪽이 잘 자라는 영산강변에 세웠다.

천년의 빛에 물든 천연염색의 고장 나주에 자리 잡은 박물관과 주변의 연구단지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 클러스터다.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염색체험과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염색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천연염색의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관람료는 무료이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전시동의 뮤지엄샵은 천연염색 염료와 염색재료, 관련서적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천연염색 생활소품과 의류, 침구류, 넥타이,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마한의 하늘을 이고 독널에서 다리품을 쉬다

내 평생의 눈물을 제 한 몸에 다 받아 마신 영산강/그 서늘한 어깨에 기대어 뜨거운 이마를 식히면/배꽃처럼 순결한 꿈을 꿀 수 있으리라(줄시 「나주에 가면」 부분)

2013년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하였다. 박물관은 반남고분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전시동은 1층과 지하1층으로 나뉘어 있다. 1층에 있는 제1전시실은 ‘-역사의 여명, -마한의 형성, -영산강 유역의 고분문화, -강의 길, 바다의 길’의 4가지 존으로 전시 공간이 연결되어있다.

드디어 마한을 만난다. 마한이 다른 유적보다 한 걸음 더 다정한 이유는 나주박물관이 있는 이 땅이 바로 마한의 땅이고 이 하늘이 바로 마한의 하늘이기 때문이다. 고대 한반도에는 기원전 1세기부터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고 그 중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자리 잡은 마한이 가장 강성하였다. 5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인 연맹체였던 마한은 한강유역에서 성장한 백제에게 주도권을 뺏겼으나 영산강유역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였다. 마한 사람들은 가을 추수 후 제사를 지내면서 춤과 노래를 즐겼으며 옥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영산강 유역에는 마한인들이 남긴 수백 기의 고분들이 남아있다. 이 무덤에는 독널, 즉 거대한 항아리 2개를 붙여 만든 관이 묻혀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독널 안에서 발견된 금동관(국보 제295호)과 금동신발, 봉황장식이 달린 큰 칼, 창, 화살 등은 토착색이 강한 마한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독널 무덤의 발전과 소멸은 영산강유역 마한의 성쇠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곳에 가면/초조한 그림자도 되운 한숨도 모두 느리고 연해져서/아무데
서나 포로롱 풋잡에 빠지고(줄시 「나주에 가면」 부분)

2천여 년 전, 이 땅에서 강성하게 타올랐던 마한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접아가리단지를 빚었고 아름다운 새무늬 청동기를 제작하였으며 틀에 부어
유리구슬을 만들어 목걸이 등 장신구로 사용하였다. 공룡알 같은 독널을 매
장문화로 삼은 이유는 알의 의미, 즉 부활에 대한 희망이었다. 특히 복암리
고분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있어 ‘아파트형고분’이라는 별
명도 가지고 있다. 전시관을 짓기 위해 1995년 이곳을 발굴한 결과 2000
년 전 중국에서 사용한 화폐 ‘화천’도 발견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마한 사람
들은 중국과 가야, 왜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대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평상이 놓인 /정자나무 그늘 같은/아직, 나
주라는/ 흘러내리듯 수룩한 그리움이 있어/나는 오늘 먼 길을 떠나리.(줄시
「나주에 가면」 부분)

부활한 마한은 이제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금과 은과
비단을 보배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물산이 풍족했던 마한, 나무로 만든 현
악기를 뜯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과 풍류를 즐기던 마
한, 군세고 용감했지만 이웃나라를 품으며 평화를 사랑했던 마한, 그래서
54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존중했던 마한, 피난 온
온조에게 식읍을 나누어주고 도와주었던 마한, 돌변한 백제의 위세에 무너
져 내린 것 같지만, 마한은 오늘 우리 곁에 다시 부활한다. 마한의 문화는 개
성화와 다양화다.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너
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처럼 소중한 오늘의 복지 사회
에서 마한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볼 일이다.

이주여성의 삶과 문학

김을현
시인/문학인협동조합 이사장



Nỗi buồn trong tôi

Hồng Xương

Đôi khi rất chán cái cảm giác...
Cùng 1 vết thương mà đau đến nhiều lần...
Buồn vì những thứ đang diễn ra...
Lại bất an khi nghĩ về những thứ sẽ tới...
Đời Đắng cay nhiều hơn Ngọt...
Đi từ từ mà vẫn ngã rất đau...
Và chẳng mạnh mẽ như bề ngoài vốn có

나의 사랑 나의 아픔

홍수용



가끔 이런 느낌에 지쳐 버린다
한 상처에 여러 아픔을 안고 가는 것
지금의 모습에 너무 슬프고
다가오는 일들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인생은 더하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많고
천천히 걷다가 아프게 넘어지고
강한 모습처럼 보이려 하지만
하염없이 약해지는 마음
그대 어깨에 기대어 보고 싶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첫 번째 다문화 커플은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왕비 허황옥이 아니었을까.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후는 거등왕을 비롯해 11남매를 생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허황후의 혈통으로 600만 명이 넘는 자손이 퍼져있다고 한다.

다문화(multiple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습과 습성이 우리를 낮



설게 한다. 문학에서는 어떨까. 한번은 이런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다. 연구 논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혹시 다문화 시인(외국인 이주민으로서 한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이 있는지요?” 하는 것이었다.

아직 전업으로 시를 쓰거나 문학을 하는 이주여성을 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에서 다문화가족의 수기나 편지, 시 등을 만나게 된다. 대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서의 정착기, 언어와 풍습으로 인한 에피소드가 대부분이다.

시와 문학은 세계 공통언어라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에서도 각각의 문화가 있고, 희로애락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들어있게 마련이다. 몽골의 칭기즈칸 어록을 살펴보면 그의 가슴에는 시가 있었고, 베트남의 아버지인 호찌민도 옥중에서 쓴 133편의 시가 전해진다. 이란에서는 시인의 무덤을 찾아 사랑을 고백하는 풍습이 있고, 성경책과 나란히 하피즈(1324-1389)의 시집이 놓여있다고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 다문화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학적 언어가 있다. 다문화 문예지 ‘나눔문학’(2011년 창간)은 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의 이야기와 문학으로 함께 하는 세상을 꿈꿔왔다. 다문화 여성은 꿈과 희망을 찾아 낯선 이국땅으로 이주하였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학은 꿈꾸기 힘든 현실이다. 그들도 소녀 시절

에는 편지도 쓰고 시집도 읽으며 깨알 같은 꿈을 꾸었을 터이다.

나눔문학과 사랑가족봉사단을 통해 만나본 몇 명의 이주여성을 소개해 보겠다. 올란바토르가 고향인 백0은 씨는 두 아이의 어머니다. 그는 활발한 성격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언제나 이웃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시낭송, 동화구연, 백일장, 전통놀이 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몽골의 전통의상을 차려 입고 몽골의 풍습을 소개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였다.

필리핀에서 이주한 크리0티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수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김장 담그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가 활발했다. 그리고 작은 무대라도 주어진다면 팝송과 트로트를 열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의 벤0시도 두 아이의 엄마로 태국에서 왔다. 그 역시 활동적인 성격으로 틈만 나면 봉사단체의 활동에 참여했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다르게 아들의 성격은 좀 내성적이었다. 하지만 ‘괜찮아요’하고 웃는 그의 모습에는 희망이 보였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의 활동도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나눔문학’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던 홍수웅의 작품을 한편 더 소개한다. 그는 1987년 호찌민에서 출생했고, 광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상담학을 전공했다. 2011년 외환 다문화가정 대상 ‘수기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 활동과 상담심리 평생 교육사로 일하고 있다.

홍수웅 씨의 등단 소감을 소개한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다. 한국어로 시를 쓰고 시인이 된다는 꿈을 꾸지 못했지만 나눔문학 시 부문에 당선되어 기쁘다. 베트남에 있을 때에 썼던 시는 서랍장 속에 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시를 쓰면 싫어하셨다. 다른 길을 가라고, 경제적인 활동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가 되어 베트남의 시와 문학을 전하고 싶다. 현재 베트남을 왕래하며 주문된 불상 조각으로 무역을 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농업과 관련된 일도 하고 싶다. 또한 나의 삶 속에 있는 글(문학)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진하겠다. 한국에서 신인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Em cần có anh

Hồng Xương

Có đôi lúc mình chỉ thèm một bàn tay
Nắm lấy mình trong những đêm cô độc
Một câu nói làm mình quên khó nhọc
"Em đừng buồn có anh ở đây rồi"!!!
Hình ảnh chỉ mang tính chất minh họa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홍수용

가끔은 당신 손이 필요해
외로운 밤 꼭 안아주면
힘든 삶을 잊어
한마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당신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언제나 당신 곁에 든든한 남편 있으니'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주여성의 삶, 그 속에서 문학의 태동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 하루하루 일기를 쓰며 자신을 기록하는 마음, 학창시절 가슴에 담은 시를 다시 적어보는 마음을 되새겨 본다. 한국숙담에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무엇을 하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특히 시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자신의 내면을 보며 긍정을 부르는 마법이 있다.

"혹시 다문화 시인이 있는지요?"하고 묻는다면, "네,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하겠다. 이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문학은 태동되었다.

회원
초대석

무드리 문예마당

- 한시(漢詩) / 정득채
- 수필 / 위무량 배병수 고창옥 오충자

敬老孝親

정득채

여기에 실린 漢詩는 한시회 광주서림음사(光州瑞林吟社) 회원들의 작품이다.

광주서림음사는 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은 26명으로 1972년 8월5일 광주시 계림동 수성노인당에서 수계 창립서림음사로 발족하여 매월 25일 정기 아회일로 정하여 매월 아회를 개최 한시의 근본 중핵인 동양 시문학의 모체이며 순수한 인간 본연의 지정의 혼백 경지를 최고로 표현하고 묘사 시킨 사상을 계절 순환과 변모 상황의 가경에 따라 삼라만상의 변화 조성된 기려 묘경을 자연법칙과 순리를 획득 감상하며 생활 주변에서 각종행사를 비롯하여 윤리, 이념구현, 실천행사와 축하 추모 제사 등에 경성 제시로 시지 17집을 제작 배부하여 한시 문화창달이 일익 발전 하였으며 會長 湖亭 李德在, 副會長 松下 文承烈, 總務 松隱 任昌奎이다.

한시 창작활동에 일취월장하여 광주에서 제일 우수한 한시 모임임을 추진하고 있다.

敬老孝親

雲亭 黃應圭

禮儀文化自吾東

예의문화는 우리동방으로 붙어 시작하였느니

敬老良風民獎勵

경노의 어진 풍속은 백성들이 장려하고

綱常沒落諸災發

강상이 무너지니 모든 재앙이 일어나고

先利後仁賢聖誠

이것을 먼저하고 인을 뒤에 함을성인의 경계인데

繼往開來永世同

옛것을 이으며 미래를 열고 영원이 같으리

孝親懿德自擔功

효친의 아름다운 덕은 자식의 부담할이네

道義宣揚萬事通

도의를 펼치면 만사가 형통할지로다

救之無策恨無窮

구할방책이 없으니 한탄이 무궁하로다

敬老孝親

湖亭 李 德 在

道德頹敗擅我東

도덕의 퇴패로 제 마음대로 행동 하고

閒眼盡日蕪餘事

종일 배불리 아무 탈 없이 한가히 잠 잘자고

欲使群生知敬老

사람들로 하여금 노인 공경 할 줄 알고

今居鄉里尊三達

지금까지 향리에서 살면서 예도가 달하니

儒風沈滯四隣同

도학이 침체함은 사람이 모두 같네

飽食終年有底功

종년에 배불리 먹음을 저공의 덕이네

權君忠孝養親通

천하 충효도 어버이 봉양과 통하네

詩酒春秋豈與窮

내 평생 시와술이 어찌 궁하리까

敬老孝親

南愚 劉 泳 揮

古來傳統禮義洞

고래의 전통 동방예의지국이요

道德宣揚崇善寺

도덕의 선양 착함을 숭상하는 일이요

遵行美俗千家續

미속의 준행천가에 이어지고

利用習教完備裡

교습에서 이용하는 완비된 속에

敬老精神理念同

경노의 정신이념이 한가지에

綱常扶植勸仁功

강상의 부식인으로 권장하는 공이네

振作良風萬國通

양풍의 진작 만국으로 통하네

康寧壽福享無窮

강영한 수복 무궁하게 행통하네

敬老孝親

月汀 金 奇 煥

自古吾莠禮義東

옛날부터 예절 의리 동에 있는 우리나라

家君信奉精誠事

자기부모 믿고받음 마음성의 섬김이고

布德宣慈良俗繼

큰덕퍼심 사랑 착한풍속이음이고

宙中孝道千秋業

세상중에 효도람은 천추거닐 사업이고

老人尊敬願開同

늙은이를 높이모심 모두원함 한결같이

隣長空崇保護功

이웃어른 공순숭배 도움보호 공이네

施仁積善美風通

어짐배품 선을쌓음 고운풍습 통함이네

檀族明倫萬世窮

단손계례 밝은윤리 만세로 뻗으리라

敬老孝親

敬軒 安基奉

敬老孝親元我東

경노효친은 우리 동방이 으뜸이니

邦家必是先傾力

나라에서는 반드시 먼저 힘을 기울여야하고

美俗遵行千世續

아름다운 풍속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願言惡習驅除後

원건데 악습을 몰아 낸 뒤에는

明倫尚禮古今同

륜리 밝히는 상례는 예나 지금이나 한가지네

閭巷應當亦獻功

여항에서는 응당공을 바쳐야 하리라

良風振作萬年通

좋은 풍속 진작시켜 오래도록 통용하고

道德精神養不窮

도덕정신을 끝없이 길러가야 하리라.

敬老孝親

立軒 申亨澈

之南至北又西東

남에가고 북에달아 또 다시 서쪽 동쪽

千仁盡是無彊壽

일천인함 모두 이 끝없는 수명이요

雍睦嘆今三族絕

화목에는 요지음에 삼족꼭임 한탄되고

孝親忠國生根本

부모효도 나라충성 인생의 근본인데

愛敬人人莫不同

사랑하고 공경함이 사람마다 한가지다

萬善誰非盖世功

일만착함 누라서 개세공 아니런가

恤救憶昔五隣通

구조에는 그 옛날의 이웃통함 생각나네

三達又斯報四窮

삼달존과 또다시 사궁에 보답해야

敬老孝親

素巖 金 容 淑

孝根百行蒿吾東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 우리나라에서 찾아야

冬夏溫涼頻問候

겨울은 따뜻한지 여름은 시원한지 자주 문후하고

雪中竹筍求天感

설중에 죽순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감동이요

風樹之悲何處訴

풍수지비의 한을 어느 곳에 호소하며

敬老丹心汝我同

경로의 붉은 마음은 너와 내가 같네

昏晨定省竭勞功

혼정신성으로 노력과 공을 다하여야 하네

氷裏鯉魚得地通

얼음속에 이어를 얻는 것은 땅과 통함일래

廣深罔惠報蕪窮

넓고 깊은 망극지 은혜를 무궁토록 갚을 수 있을까

敬老孝親

梧鳳 鄭 得 采

極盡精誠 俗我東

정성이 지극함은 우리동에 풍속이고

施情社會 歡迎道

정 베풀어 사회가 환영하는 도리

蒼海釣魚 恒省近

창해에서 고기 자아 부모 가까이 섬기고

沈恩劬勞 何時報

부모님 은혜 어느 때 다 갚으리오

人於百行 孝原同

사람에 백행의 효의 근원이 같네

養志家庭 可謂功

효심을 가정에서 길러 가히 경로이네

青山負木 每溫通

산에서 나무해서 항상 따뜻이 하네

歲月如流 不待窮

세월은 물 같아서 오래 기다리지 않네

敬老孝親

陽田 李 潤 陽

東方禮儀 始韓東

동방예의는 동쪽나라 한국에서 비롯되었는데

父母養馴 慈駿愛

부모님의 엄하시고 인자함으로 기러 훈련시켜 주시고

寵孩奉耆 人人戒

아이들 사랑하고 노인 봉양함은 사람마다의 계명이요

小學丁勤 當有望

소년은 배우고 장정은 부지런하니 마땅히 소망 있으며

歐美風流 動世同

구라파와 미국 풍속이 들어와 세상과 함께 움직이네

恩師訓導 矯鞭功

은사님의 지도로 잘 가르쳐 주셨네

扶弱尊翁 世世通

약한 자 돌보고 노인들 존대함은 대대로 통하여 오네

家和產裕 樂無窮

집안이 화목하니 즐거움이 무궁하네

敬老孝親

萬年齊 安 棟 周

禮節情神最海東

예절정신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니

遵行道德崇仁事

도덕을 준수행하고 고인을 숭상하며

返哺明倫良俗續

반포명륜의 어진 풍속 이어지고

願言惡習驅除後

바라건데 나쁜 폐 습을 없앤 뒤에

孝親敬老古今同

경노효친함은 예나 지금이나 같네

扶植綱常勸善功

선을 권한공은 강상을 부식함이네

氷魚教訓美風通

빙어의 교훈은 미풍으로 통하네

竭力誠心永不窮

정성스런 마음으로 힘을 다하면 오래도록 궁하지 않으리라

敬老孝親

云絲 柳 花 善

禮儀自古有吾東

예의가 예부터 우리나라에 있으니

不愧子孫先卿力

자손부터 부끄럽진않게 먼저 힘을 기우리고

宣揚孝悌邦家和

효제를 선양하면 방가의 화목되니

惡習情化良俗活

악습을 정화하고 양속을 부활시켜

人事수知苦樂同

사람 할 일을 반듯이 알며 고락을 함께 하였네

應當敬老優待功

당연히 노인 공경과 대접에 공을 드리니

固守綱常事會通

강상을 굳게지켜 사회에서 상통하세

明倫暢達永無窮

밝은 윤리를 창달하면 오래도록 무궁하리

敬老孝親

誠齊 朴 東 申

日盈西仄月生東

서쪽으로 해 기울면 동쪽에서 달 떠오르듯

花樹非枯根盛澤

꽃과나무 시들지않음 뿌리가 튼튼함이요

公孫布被何時效

공손의 겹손근검 어느때나 본보기요

自古人間天壽限

예로부터 사람들이 받은목숨 한정되니

萬象循環如此同

모든물상 순환함은 이와 같이 한가지네

玉泉佛學院沈功

맑은샘물 마르지 않음 수원이 깊은것이라

曾子離僧永世通

증자의 지성효심 영원세상 진리로다

孝親敬老事無窮

부모효도 어른공경 섬기는일 가이없네

敬老孝親

學松 宋 泰 鐘

禮儀名邦首我東

예의의 나라라로 우리나라 으뜸이니

定昏晨省子孫業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손들의 할 일

地極精誠天地感

정성을 다하면 천지가 감동하고

倫綱頹俗誰回復

윤강이 무너지는 그 누가 회복하나

孝親敬老本根同

부모 효도 노인 공경 근본이 같다네

供奉隨心少者功

노인에 공손함은 젊은이의 할 일이다

行殫謙遜鬼神通

검손하게 행동하면 신과도 통 한다네

萬古方風振不窮

만고의 미풍이 영원히 떨치기 바라네

敬老孝親

盱海 申 東 住

大倫崇尚是吾東

대륜을 숭상하는 우리나라에

敬老盡誠承美德

노인을 공경하여 성의를 다해 미덕으로 받들고

綱常實踐良風續

강상을 실천하여 좋은 풍속을 이어가고

正本衰頹當復活

정본이 쇠퇴함을 부활함이 마땅하고

聖祖遺民精氣同

성조의 끼쳐진 백성 정기가 같더라

事親至孝報恩功

아버이 섬기기에 지극히 효로 은공을 갚아야하네

道義宣揚善俗通

도의를 떨쳐 좋은 풍속으로 통하리라

後生敎道永無窮

후생을 가르쳐 인도하여 무궁하게 해야하네

敬老孝親

碧艸 鄭 鐵 守

儒風振作是吾東

유풍을 떨쳐 일으킨 나라 바로 우리고

倫理宣揚行古道

윤리선양 함은 옛 도의를 행하고

鍊磨漢學仁心遠

한학을 연마해도 어진 마음 멀고

物質西歐邪教去

서구물질만능 사교를 물리치면

推孝人親敬老同

효를 받들고 인친함은 어른 공경함과 같네

綱常扶植立新功

삼강오륜 뿌리내려 입신의 공이 된다

耽究時文義意通

깊이 연구한 시문 의의 뜻을 통했네

應知天理永無窮

응당알지니 자연의 도리 무궁 하다네

敬老孝親

松隱 任 昌 奎

傳來敬老最吾東

전해오는 경노효친 우리나라가 최고요

父母慈仁千歲赫

부모님의 어진사랑 천년토록 빛나고

晨昏定着良風續

새벽 저녁 잠자리 살퍼 좋은풍속 이어서

出入先知能奉孝

들고날 때 먼저 알리고 효도로써 받들면

育我于今使在同

나를 양육 하시어 지금까지 있게 하셨네

子孫禮節萬秋功

자손들의 예절은 오랜세월 은공일세

冬夏溫凉美俗통

여름겨울온돌맞춰 아름다운 풍속 전하세

家門慶事絡無窮

가문에 좋은 경사 끝없이 이어지리

망향(望鄉)의 눈물

인두(人頭)걸을 쓴 괴수(魁首)!
변방(邊方)을 배회(徘徊)하다.
양(羊)들이 사는 땅에 불쑥 나타나
삶의 터전을 천국(天國)으로 만들겠다며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내뱉더니



위 무량
북구문화원 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원

우릿간을 만들어 양들을 가두어놓고
충성맹세 강요함에 하늘처럼 받들며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쪼들리며
꽃제비로 전락하여 방황(彷徨)하다가
우릿간을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다.

기후(氣候)도 세월을 따라 변해
계절(季節)도 방향감각(方向感覺)을 잃고
극지(極地)의 빙산(氷山)이 녹아내리며
삼라만상(參羅萬像)도 모두 변하고 있는데
지옥의 우릿간은 언제 녹아 없어질지?

우릿간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괴수만을 하늘처럼 받들고 살아가시는
북녘의 고향 땅 부모 형제 보고파서
찢어질 듯 아픈 가슴을 부여 않고
오열(嗚咽)하며 흘린 눈물 멈추질 않아

고향 땅을 걸어서 가볼까?
38선을 밟아 넘으려고 수 없이 헤맸으나
올가미를 쳐놓고 광견(狂犬)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총구를 겨누고 있어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구나

지옥(地獄)의 우릿간을 탈출한 꽃제비!
비록 천국에서 천사(天使)로 살고 있지만
날개 없는 천사라서 새들처럼 날지 못해
넘지 못한 38선을 원망하며 피눈물 흘리다가
망향동산서 망배(望拜)로 대신하고 돌아섰다.



그것을 알고 싶소.

판관(判官) 나리님!

선량(選良)들을 여의도(汝矣島)에 보낼 때
나랏일 잘 돌보라고 방탄조끼 입히고
호위무사 대동시켜서 먹고살기 넘친 급료(給料)와 꿈에서도 보도 듣도 못한 수많은 명목(名目)의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고 있건만

선량으로 위장한 양상군자(梁上君子)들이
여의도에 입성(入城)한 것인지?
그들끼리 무리를 지어 논(論)하라는 나랏일은
말[言·馬]꼬리 잡기로 허송(虛送)하고
밀렵(密獵)하여 은닉(隱匿)해둔 사냥감이

사방팔방(四方八方)에 산적(山積)해 있다기에
출처(出處)와 정체(正體)를 밝히라 하니
온갖 변명(辨明)과 괴변(怪變)으로 말장난만 일삼은
양상군자들에겐 팔구십 만 원짜리 면죄부를 팔아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훨훨 날도록 해주고

허기진 배를 달래고파 빵 한 쪼가리
흠쳐 먹으려다 붙들린 어린 길고양이는
포수(砲手)가 은팔찌 채워 끌고 가니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구치대학(拘置大學)에
특례(特例)로 입학을 시킨 것은?

치매(癡呆)기가 발동한 눈동자로 법전(法典)을
판독(判讀)하여 판결을 내린 것인지
연금술사(鍊金術士)의 기법(技法)을 이용(利用)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판례(判例)를 인용(引用)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소?

존재의 의미



송천 배 병수 (松泉 裴 炳洙)

우리말에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어쩌다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가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평생을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를 말한 것이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내 고향 순창읍이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로 생각하였다. 순창읍에 하나뿐인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4km 이상을 도보로 통학하는 친구들에겐 촌놈이라고 얕잡아 보기도 했던 한심한 때가 있었다. 어린 시절엔 몸매가 크고 힘이 강하면 제일인줄 알았다. 친구를 따라 도청소재지인 전주와 광주를 다녀온 뒤로는 내가 진짜 촌놈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점차 성장하면서 학교의 기초교육을 습득하면서 지구의 크기를 이해하였다. 오대양 육대주가 있는 지구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것도 알면서 우주의 방대한 규모에 놀라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63%가 아직도 산으로 조성되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진입하면 크고 넓은 산으로 첩첩이 에워 쌓여있다.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곤충과 새들이 평화롭게 사는 또 하나의 숲의 세계가 펼쳐있다. 숲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미생물들에서 맹수들까지 공존하면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넓은 면적에 자리 잡은 숲에서도 개미의 세계가 있고 이름 모를 새들의 활동공간도 있다. 작은 곤충과 커다란 맹수들을 비교하면 곤충은 하

참은 작은 동물이고 맹수는 힘이 강하고 커다란 동물이기에 숲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보였다. 하지만 크고 작은 동물이나 미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모두 있기 마련이다. 사람 사는 모습도 잘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내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게 보인다.

숲에 사는 개미의 세계는 지휘자가 없는 것 같아도 각각의 활동을 보면 부지런하게 활동한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무리지어 사는 모습이 나름대로 단체 활동을 통해 삶의 방식이 있어 보인다. 사람도 도시를 형성하며 무리지어 사는 모습이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여러 동물도 끼리끼리 모여서 활동한다. 사람뿐 아니라 많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유상종 하는 것 같다. 요즘엔 학연이나 지연으로 유유상종을 반어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대의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면서 함께 어울릴 사람을 더욱 찾게 되는 것 같다. 취미가 같을 경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료 등도 공유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유유상종의 삶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불가에서는 ‘사바세계’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세상임을 말한다. 모든 생물체를 관심 있게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며 활동한다. 생태계에서 보면 살고 있다는 것이 잡히거나 먹히는 것을 접하면서 삶과 죽음은 찰나에 결정되기도 한다. 허허벌판에서 약육강식의 생존 방식을 보면 항상 긴장하며 사는 모습이 힘겹게 보일 때도 많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모두가 신이 창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신비하지 않은 생물이 없다. 여름 한 철을 살기 위해 몇 년간 나방을 거쳐 탄생한 매미와 풀벌레도 있고, 수명이 길다는 학이나 거북이도 있다. 이처럼 생명의 길이도 천차만별이고 습성이나 기질도 모두 각기 다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수명이 짧게 살다간 보잘 것 없는 미물도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명명 그리며 오래 살다 간 사람도 있으나 한 번 생명이 끊어지면 모두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철칙이다.

짧다와 길다, 크다와 작다는 것도 우리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순식간이나 찰나로 표현한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을 불가에서는 겁(劫)으로 표현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 찰나라 말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 1초는 반도체의 세계에서는 아주 긴 시간일 것이다.

지구가 허공에 두둥실 떠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며 태양계를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도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다. 지구가 크다고 말하지만 지구보다 큰 행성도 많고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과 별의 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거리이다.

나의 귀로는 모든 것을 청취할 수 있고, 나의 눈으로도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귀로 청취할 수 있는 것은 20hz에서 20,000hz 범위 내에서만 청취가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불가시광선은 볼 수가 없다.

만약에 모든 주파를 청취할 수 있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소리와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도 듣게

되어 우리의 뇌는 혹독한 피로감에 정신 이상자가 될 것이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가려서 듣게 해 주신 창조주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만물은 까닭이 있어 태어났고, 희로애락과 오묘한 즐거움의 조화로 존재하는 것 같다. 작은 것은 작은 데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모두 구성원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송천 배 병 수 (松泉 裴 炳 洙)

(2006년)『수필시대』등단. (2007년)『수필문학』등단

(2009년)『소년문학』등단(동화).

단테 탄신 기념 문학상 (2010, 수필)대상 수상. 제7회 한국 문협 작가상 수상(2010년)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 수상(2012년)

제12회(2012년)산림문화작품공모전 동상수상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창립 이사장상(2019년) 수상

2020년제17회 세계문학상공모 본상 수상

(전)한국아동문학회 이사. 한국수필가연대 부회장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저서(수필집): 《멈춤 그리고 시작》,《순환의 여정》,《갈대의 춤》

(동화집): 《청설모가 왕인 나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35. 105동 707호(상무1차 우미아파트)

e-mail: b6735423@hanmail.net

010-3530-4100

영산포의 명물 문화!

고 창 옥
북구문화원 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를 거닐다 보면

영산포 역사 갤러리가 있다.

1908년 이 자리에는 한국에 이주해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 하는데 주력 하였던 광주농공은행 영산포지점이 설립 되었고, 1918년 농공 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면서 영산포 사람들은 이 건물을 ‘식산은행’이라 불렀다.

해방 후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가게로 활용 되다가 2012년 9월 나주시가 매입하여 영산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갤러리로 조성 하였다. 이 역사 갤러리는 영산교(榮山橋)로부터 상류 150m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600년 전통 영산포 홍어 거리다

영산포 홍어는 굽이굽이 영산강 뱃길을 따라 올라와 땀을 내리면 잡힌 홍어가 먼 뱃길을 따라 올라오는 사이에 자연 발효 되어 독특하고 절묘한 맛을 내는 웰빙 식품이다. 옛 영산포구가 있던 자리에 40여 곳의 홍어 음식점과 도매상이 들어 서있다. 고려 말 흑산도를 비롯한 전라도 섬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던 주민들이 강을 따라 물으로 거슬러 왔는데, 그곳이 영산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들은 육지로 왔음에도 어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흑산도 인근에서 고기를 자기 배에 싣고 돌아 왔는데, 더운 날이면 다른 생선은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홍어만은 먹어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삭힌 홍어는 영산포의 특산물이 된 것이다.

조선후기의 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는 “나주인들은 삭힌 홍어를 즐겨 먹는데, 탁주 안주로 곁들여 먹는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 홍어 거리는 영산교(榮山橋) 주변에서 영산포 시내 쪽으로 형성 되어 있다.

[영산포 너른 품에 안긴 영산포와 홍어 이야기가 영산포에 살어리랏다.]

영산포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내륙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말 서해안일대 섬사람들은 왜구의 노략질을 피해 강을 따라 이곳까지 피난와 머무르곤 하였고 그러는 사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특 쏘는 바로 그 맛, 삭힌 홍어! 맛 좀 보시오

영산포는 고려 말부터 600년 이상 흑산도 홍어가 거래 되어온 홍어의 본 고장이다.

흑산도 홍어가 영산포까지 배에 실려 오는 과정에 숙성 되었던 것에서 유래된 삭힌 홍어는 특 쏘는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삶은 돼지고기와 묶은 김치를 함께 먹는 ‘홍어 삼합’이 유명 하다. 홍어는 예부터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던 음식이고 결혼식, 회갑, 초상등 집안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았다. 홍어가 빠지면 잔칫상으로 인정받지 못 할 정도로 홍어는 전라남도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

홍어는 회, 구이, 국, 포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다. 나주 사람들은 홍어를 삭혀 즐겨 먹는다. 자산어보(茲山魚譜) 정약전 1814년 씀으로 되어있다.

영산강의 연인(戀人)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랑사와 아비사 양암 바위 다시면 회진에서 영산강을 따라 영산포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가야산에 있는 56m 높이의 깎아 지른 바위 절벽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양암(仰岩)바위” 또는 “양암 바우”라 부른다. 양암 바위 일대는 그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바위 아래 강물이 소용돌이치면서 깊은 소(沼)를 만들어 영산강을 다니던 배들이 자주 침몰해 사람들은 양암 바위 아래에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 양암 바위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 오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택춘에 사는 아랑사라는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는데 양암 바위 옆 진부춘에 사는 아비사라라는 처녀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홀아비가 병들어 물고기를 잡수고 싶다 하여 강가에 나왔으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뛰어난 어부였던 아랑사는 당장 물고기를 잡아 아비사에게 주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밤마다 양암 바위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이곤 했는데 이를 시기한 진부춘 젊은이들이 아랑사를 양암바위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후로도 아비사는 양암 바위를

찾아가곤 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 젊은이들이 가보니 강에서 바위를 타고 올라온 커다란 구렁이와 아버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마을 젊은이들은 이를 나쁜 징조라 여겨 그들을 바위 아래로 굴러 버렸다. 그 뒤로부터 진부촌 젊은이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두 마리의 얇힌 구렁이가 밤마다 진부촌에 나타났다. 이에 마을 노인들이 무당들로 하여금 음력 8월에 씻김굿을 하여 그들의 넋을 위로한 뒤부터는 화를 면 했다고 한다. 지금도 양암 바위 절벽에는 아랑사와 아버사가 서로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남아 있어 황포돛배를 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 모습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전한다. 아“양암 바위”는 영산교(榮山橋)로부터 약2Km이상 떨어진 지점에 존재하여 영산강의 가장 큰 “심볼”이다.

영산포 등대 등록 문화재 제 129호

영산포 등대는 1915년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돼 영산강 수위관측과 등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영산강 뱃길이 끊기면서 그 기능이 상실 되었다. 원래 수위 측정기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 되었으며, 국내 내륙에 설치된 유일한 등대이다. 또한 영산강의 옛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주요 시설로 당시의 이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가치가 크다. 이 등대는 선착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일제는 나주의 드넓은 농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1909년 영산포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영산포 지점을 설립 였다. 1916년 목포지점 영산포 출장소로 바뀌어 살 6만5천석, 보리2천석, 목화 1만근을 관리하였다. 지금은 토지 수탈의 본거지였음을 알려주는 붉은 벽돌로 지은 문서고만 일부 변형되어 남아있다. 이 문서고는 영산교(榮山橋)로부터 600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영산포 5일장

영산포는 천혜의 뱃길이자 수송로였던 영산강을 끼고 있으며 호남선이 1914년 개통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1920년 8월 영산동에서 장이 열리기 시작하여 전남 서남부 8개군의 도매시장 역할을 하였고 특히 우시장은 하루에 200~300마리의 소가 거래 될 정도로 번성하여 한때는 제주도 말까지 거래될 정도였다.

2003년 5월 지금 자리에 풍물시장 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해 다시 문을 열었다.

또 2020년 나주시가 재단장을 하여 면모 있는 시장으로 잘 운영 되고 있다. 이 5일장은 석기내 다리(양곡교) 안쪽 영산포 시내로 가는 입구에 펼쳐져 있다.

석기내

석기내는 영산강 지류인 만복천가에 이루어진 마을로 영산포로 가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길목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1910년 영암으로 이어지는 국도가 개설 되면서 석기내 다리 (양곡교)가 설치되어 영산포와 남부지역을 이으면서 주막, 여관, 정미소, 도축장이 들어와 번성했다. 영산강을 무대로 구한말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까지의 삶과 역사를 다룬 문순태 작가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의 무대로 유명하다.

여기에 영산포에 대하여 첨언하면 목포 앞바다에 하구언을 막으면서부터 뱃길이 두절되어 수육교통(水陸交通)이 막히게 되어 영산포에는 상업기능이 떨어지고 하구언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영산포 인구 2만명 이상의 읍기능이 줄어서 현재는 인구 1만명 정도이므로 지금이라도 하구언을 제거하여 배가 영산포 선착장에 들어와서 영산포에 다시 수육교통시대(水陸交通時代)가 열리고 수질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소원 하면서 이렇게 영산포 명물문화는 영산강으로부터 나온다고 소개한다.



배자를 만들며 ..

오충자
북구문화원 회원

북구 문화원에서 배자를 만드는 강좌가 열린다는 프로그램을 보고 추운 겨울이면 항상 고운 배자를 즐겨 입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났다.

코로나 19로 거리두기 때문에 10명만 모집이기에 서둘러 접수를 하였다.

함께 배울 수강생들은 70대가 3명 정도이고 대부분은 4~60대들인 것 같았다.

요즘은 큰돈을 주지 않아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으며 빠름만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40대의 젊은이가 우리의 옛 옷을 옛 방식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찾아온 것이 예쁘게 보이고 우리의 전통 옷이 박물관에만 전시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치수를 제고 치수내기를 하고 종이에 본을 떠서 천위에 본을 놓고 잘 못 잘라 천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조심조심 싹싹 가위질을 했다.

그리고, 따뜻한 솜도 같은 방식으로 재단하여 천과 솜을 합하여 고정판을 꿸고 한땀 한땀 뒷박음질을 했다.

그러다 옆 사람 것을 보며 내 바느질이 너무 성글면 다시 뜯어 고치고 줄이 틀어지면 다시 뜯어 고치느라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면서도 배자를 만든다는 즐거움에 피곤한줄 몰랐다.

함께 배우는 옆 사람도 한 번도 천을 가위로 잘라 본적도 옷을 만들어 본적은 없었는데 강사님 말을 따라하다보니 '옷이 되긴 된다면 참 재미있다'고 했다.

이렇게 열심히 배자를 만들다 보니 옛날 아이들의 뜨개 옷을 뜨며 '벌써 이만큼 떴구나'하고 스스로 오져서 아이의 등판에 대어보며 결국에는 바늘대가

꽃인채로 싫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입혀보던 생각이 나서 혼자서 픽 웃게 된다.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날을 정성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과물은 당연히 좋지만 과정 또한 참으로 큰 즐거움이다.

수강생 중 한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옷을 핀으로 고정하고 입어보았다. 좀 더 몸에 잘 맞은 옷을 받들기 위한 가봉이라는걸 한 셈이다.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 ~ 예쁘다’ 하고 감탄사를 발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작품에 바늘을 꽂았다

이렇게 우리들은 6일만에 예쁜 배자를 만들어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만든 배자를 입고 브이(V)를 그려 보이며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었다.

나는 내가 만든 배자를 입고 외출을 하였다. 옷을 본 사람이 이 흔하지 않는 옷에 눈이 갔는지 ‘옷이 정말 예쁘네요’ 한다.

‘제가 만들어 입었어요 하니’, ‘어머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말해서

나는 ‘제가 솜씨가 좋은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만들었는데 강사님이 시키신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외출해서 실내에 들어가서 겹옷을 벗으면 등이 싸늘해 질때가 있는데 배자를 입었더니 등이 따뜻하고 우아한 느낌도 나고, 색이 고와서 주위까지 화사해진 것 같아서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즐겨 입어야겠다

배자를 만드는 동안 나를 정성으로 길러주셨던 할머니와 유년의 기억들을 마주하며 보냈다.

배자는 나에게 할머니와의 추억이고 그리움인 것 같다.

여러날 동안 할머니와의 추억에 젖어 예쁘고 따뜻한 배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북구문화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도 배자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지내시기를 바래본다.

제27회 무드리 그림가·글쓰기 대회 공모전

| 입상자작품 |

그리기 부문

수상내역	이름	학 교	학년반	훈 격
대 상	정 윤 주	상일중학교	1-6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	김 소 윤	광주신창중학교	2-3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우 민 규	담양중학교	1-2	"
"	유 한 결	본촌초등학교	6-7	"
우 수 상	김 신 형	장덕중학교	1학년	북구문화원장상
"	조 정 희	고실중학교	1-2	"
"	조 은 비	매곡초등학교	5-1	"
"	김 가 은	새별초등학교	1-1	"
"	백 온 유	광주선운초등학교	3-10	"
장 려 상	이 지 혁	아이편 미술학원	7세	"
"	최 윤 하	광주수원초등학교	3-8	"
"	윤 수 환	동림초등학교	6-5	"
"	정 우 창	신세계유치원	5세	"
"	조 애 린	본촌초등학교	6-7	"
가 작	공 해 승	엔젤시피다	7세	"
"	강 다 인	마지초등학교	5-4	"
"	박 연 우	일동초등학교	3-1	"
"	윤 진 서	아트편 미술학원	7세	"
"	정 다 정	광주송원초등학교	2-2	"

글쓰기 부문

수상내역	이름	학 교	학년반	훈 격
대 상	박 동 영	광주고려고등학교	1-5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	강 다 윤	마지초등학교	5-2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이 민 결	일신초등학교	4학년	"
우 수 상	노 현 웅	화개초등학교	3-6	북구문화원장상
"	장 소 영	문우초등학교	5-2	"
"	남 옥 빈	하백초등학교	5-2	"
장 려 상	최 현 식	용봉중학교	2-5	"
"	김 단 호	월봉초등학교	4-6	"
"	장 예 준	매곡초등학교	4-2	"
"	윤 은 호	일동초등학교	5학년	"
"	박 하 윤	무등초등학교	4-3	"
가 작	정 시 우	아이꿈 어린이집	"	"
"	조 은	양산초등학교	3-4	"
"	손 효 정	화개초등학교	3-2	"
"	정 혜 인	일곡초등학교	2학년	"
"	김 은 유	산정중학교	1학년	"





대상 정은주 (상일중학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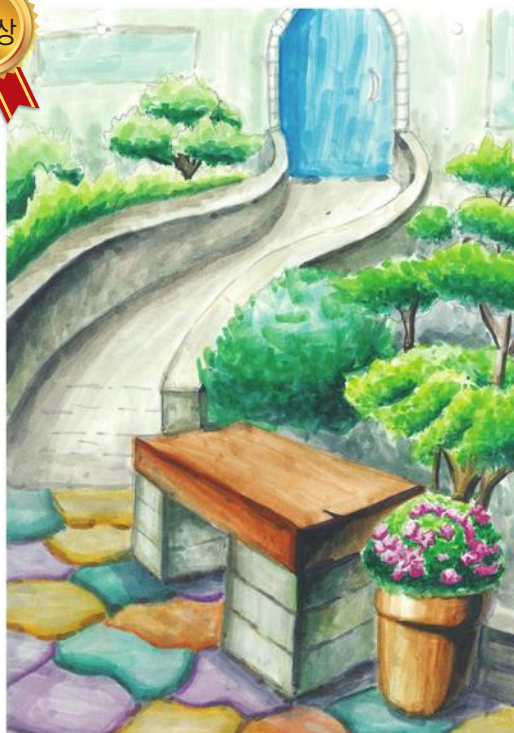
최우수상 김 소 윤 (광주신창중학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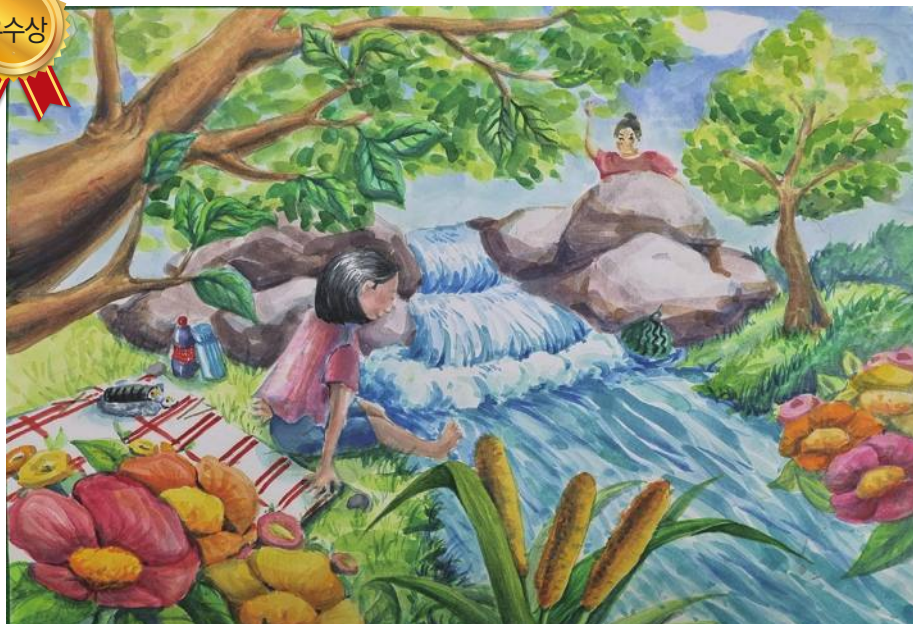
최우수상 우 민 규 (담양중학교 1-2)



최우수상 유 한 결 (본초초등학교 6-7)



우수상 김 신 형 (장덕중학교 1학년)



우수상 조 정 희 (고실중학교 1-2)



우수상 조 은 비 (매곡초등학교 5-1)



우수상 김 가 은 (새별초등학교 1-1)



우수상 백 온 유 (광주선운초등학교 3-10)

장려상



장려상 이 지 혁 (아이편 미술학원 7세)



장려상 최 윤 하 (광주수원초등학교 3-8)

장려상



장려상 윤 수 환 (동림초등학교 6-5)



장려상 정 우 창 (신세계유치원 5세)



장려상 조 애 린 (본촌초등학교 6-7)

■가 작



가작 공 해 승 (엔젤시씨다 7세)

가작



가작 강 다 인 (마지초등학교 5-4)



가작 박 연 우 (일동초등학교 3-1)

가작



가작 윤진서 (아트편미술학원 7세)



가작 정다정 (송원초등학교 2-2)



자연과 공존하는 나, 자연과 하나 되는 너, 우린 현명한 미래세대

박동영 (고려고등학교 1-5)

“휘리릭~” “착!” 살짝 열린 창틈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책상 위에 올려져있던 백 사십쪽짜리 소설책을 뒤로 넘긴다. 무언가 새로운 날이 온 듯, 다른 날이 찾아온 듯, 예전과는 다르게 포근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집을 환하게 비추며 방긋 미소를 짓는다. 하늘에는 마치 파란 물감을 얹어놓은 것 같이 푸르고 넓은 우주가 나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다... 그 날, 계절의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음을 직감한 나는 그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온화한 서녘의 바람이 나의 얼굴을 스쳐지나가고... 겨울동안 얼고 굳어져 있던 땅에서는 이름 모를 여러 풀들과 꽃들이 푸릇푸릇 솟아올라 자연의 손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온 나를 반겨주기라도 하듯 바람을 타고 넘실넘실 춤을 쳤다.

이제 막 지 어미를 떠난 민들레 씨앗들은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듯 자기가 먼저 가겠다며 바람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난다. 이러한 자연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따스한 햇살을 맞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동네 뒷산을 향해 걸어간다. 10분 남짓 걸어 숲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바람이 다시 한 번 휩 불며 나무들이 반갑다는 듯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내게 인사를 건넨다. 그렇다. 자연은 항상 나를 반겨주고 외로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참 고마운 존재이다.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소소하게 위로를 해주는 친구이자,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묵묵하게 들어주는 건 자연 밖에 없는 거 같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와 자연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자연은 내가 있는 곳마다 어디든 같이 있어주었고, 언제나 내 편이 돼주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나의 친구였던 자연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 연약해지고 몸이 아파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하루하루가 슬프고 비참하기도 하다... 어느 날에 이러한 질문을 나의 내면에 던져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되면, 그 땐 나는 어떡하지?” “자연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자연의 순수함과 선함을 이제 더는 느끼고 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내 심중에 던질 때 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 자연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자연에 대한 인간들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다. 태초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며 인간과 함께해온 자연 즉, 우리의 지구는 단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 인류의 생존을 도왔고 문명과 기술의 진보에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었다.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자원을 제공하고,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들을 보다 더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간 주체가 바로 자연이다.

예로부터 자연이 식물과 동물을 이용해 인간들에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식량을 먹은 인간의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과 에너지가 발생하여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로 인해 일을 할 수 있게 된 인간들은 물과 불, 그리고 나무 등 자연이 내어준 소중한 자원을 이용하여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고, 열심히 일한 뒤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정주환경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곳에서 생계와 가정을 꾸렸다.

이로써, 자연이 없었다면 인간도 없었고, 인간의 시초와 근본은 곧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문명의 전진으로 성장한 인간들은 현대 사회에 들어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고,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 뚜렷하게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 인간들과 달리, 우리의 자연은 점차 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과열된 경쟁과 금전적 부에 눈이 먼 인간들이 자연의 소중한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자연환경 오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수 백년간 대기 중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인류의 급속한 경제 발달이 이루어진 산업화(20세기 초)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소위 “수직상승”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난 수 천년간 지구 기권에 포함된 탄소의 양으로는 역대 1위로 많다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서,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특성상 축적성이 굉장히 강하고 수명이 길어 대기 중 누적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년, 2년이 지날 때마다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테인도 최근 인구와 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 활동에 의해 시스템 불균형이 나타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아파가는 자연의 모습이 보여 마음이 참 안 좋다. 특히, 자연의 시스템 상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복사에너지가 지표면을 가열시킨 후, 그 일부는 지구복사에너지로 상호 전환되어 우주권으로의 방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대기층에서는 앞서 말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의 온실기체가 산업화 이후 두텁게 자리 잡으면서 지구복사에너지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지구 안에 누적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온실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저러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온실기체들이 대기권 위에 위치한 성층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태양에서 지구도 들어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마저도 탄소에 의해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대기권 내에서 일어나는 온실효과만으로도 지구의 평

평균온이 올라가 심각한 상황인데, 오존층까지도 파괴되어 대기로 들어오는 자외선과 일사량이 증가해버리면서 지구온난화에 있어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떠올리기도 싫은 위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경쟁, 그리고 여태까지 인간 생활에 발판과 근본이 되어준 자연의 은혜를 잊는 이기심에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이처럼, 지구의 평균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는 물론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상이변이 해마다 족족 일어나고 있다. 올해 2021년도 과연 예외가 아니다.

새해의 첫 시작인 1월 초반부터 북극발 한파가 강하게 밀려와 1월7일 광주의 최저기온이 영하 13.5도까지 곤두박질치며 무려 “50년만의 역대 최저기온”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인근 목포에서도 90년 만의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며 전국을 뽕뽕 얼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혹독한 한파가 찾아왔던 1월과는 상반되게, 3월에는 전혀 없는 이상고온현상이 일어나 서울에서는 3월의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극단적인 날씨 패턴 반복의 연속이었다. 벚꽃의 개화시기도 관측 이래 가장 빨랐다.

우리의 자연이 점차 제 모습을 잃어 가는 게 눈에 보인다. 특히, 21년 3월에 기록한 이 기온의 최고치는 여름 폭염이 유난히 혹독하기로 유명했던 해인 2018년의 기록마저도 뛰어넘은 수치로, 올해 21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워질지 장담하기조차도 어려워진 게 현 상황이다.

올해 뿐만 아니라 다음 2022년, 2023년, 그리고 수년 뒤에는 또 어떤 무시무시한 기상이변이 우리 인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우리가 직면할 기후위기와 기상재해는 앞으로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다.

한편, 우리의 아픈 자연은 기상이변 외에 또 다른 방향으로도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기도 한다. 그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도움을 요청할까? 가령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의 탄소 소비량과 배출량이 늘어나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박쥐, 모기와 같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동물들의 서식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매개체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늘어나 말라리아, 일본뇌염, 쯤즈 가무시병과 같은 질병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위력을 가진 전염성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앞으로 언제든지 코로나와 비슷한 혹은 코로나보다 더 강한 내성을 가진 전염병들이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근본마저도 다름 아닌 자연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함부로 이용하고 개발했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그 형태가 최악의 폭염이나 슈퍼태풍, 그리고 북극 발 겨울한파 등 여러 기상이변이 될 수도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팬데믹이 될 수도 있다. 이로써, 우리는 19~20세기 초 산업화부터 공장의 매연을 평평 내뿜거나, 인간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21세기인

지금,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인류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주었던 자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할지 실감이 간다. 나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동네 뒷산에 갔을 때마다 풀숲의 나비들은 나를 항상 반겨주고, 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내가 산에 찾아옴을 환영해주는데, 그러한 자연의 모습은 볼 때 마다 나는... 코끝이 찡해지고 나의 눈앞이 뿌옇게 변한다.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뒷산은 현재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산 중심부가 도로와 터널 등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어 안타까움과 슬픔이 배가 된다. 물론, 나와 같은 녹색시민들의 반발로 실행이 점점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행여 계획이 철회되지 않아 내가 “자연”이라는 친구와 교감을 했던 그 자리가 한 순간에 매연이 넘치는 도로와 터널로 변해버린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의 한쪽이 아려온다. 이젠 다시 날 반겨주는 꽃들과 나비들, 그리고 나무들과 같은 자연의 그 친숙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고...?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안타까움이 파도치듯 밀려온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나를 비롯한 미래 세대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자 임무는 바로 “자연환경 보호와 조화로운 공생”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우리는 물론 다음 후송세대에게까지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노력할 것이며, 과거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자연과 이젠 하나가 되어, 그 푸르른 모습을 최대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찾아 떠날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해왔기에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기후가 무너지면 머지않아 인류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치, 여러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코로나 19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진보한 과학기술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서로 손을 맞잡는 현명한 미래세대가 되어야한다. 이렇게 현재 10대의 나이를 달리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 즉 앞으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은 이른 바, “녹색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10대가 아닌 20대도 30대도 50대도 괜찮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자연이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녹색세대”가 되어 자연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아아,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하나가 되는 자랑스럽고 현명한 지구의 미래세대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자연의 소중한 모습을 되돌리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역사에 남을 멋진 세대가 되어보자. “우리 현명한 미래세대니까!”

미래의 기상학자이자 기후변화 전문가, 그리고 환경보호 운동가로 활동할 내가, 20년 뒤 인간과 자연이 서로 아름답게 공생하는 모습을 꿈꾸며,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미래 세대들의 모습을 꿈꾸며, 이 글을 쓴다.



최우수상

자연을 지키는 환경파수꾼

강다윤 (마지초등학교 5-2)

위이이잉 탁! 위이이잉 탁!

밤새 모기가 내 머리 위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통에 나는 잠을 설쳤다.

아침에 눈을 뜨니 모기에 물린 이마가 부어 올라 간지러웠다.

“엄마~~ 제 방에 모기장 쳐주세요~”

나는 급하게 엄마에게 쫓아가 모기에 물린 이마를 보여드리며 부탁드렸다.

“6월인데 벌써부터 밤에도 이렇게 더운거야~”

아빠도 잠을 설치셨는지 푸석푸석한 모습으로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오며 안방에서 나오셨다.

“기온이 높으니까 6월인데도 벌써부터 모기가 설치대지 않나. 앞으로 어찌 될는지 정말 이러다가 이상 기온으로 영화 속에 봤던 재앙이 오는 거 아냐~?”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침을 먹고 우리 가족은 서둘러 시골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다.

시골에 도착하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달구어진 해를 안은 채 혁혁 된 정도로 숨이 막혔다.

할머니는 검게 탄 피부에 하얀 수건을 걸치고 굵은 허리는 아픈지도 모르고 땀에 흠뻑 젖어 말라가는 고추는 보다 못해 물을 대고, 더위 속에 수분을 빼앗긴 밭이랑 흙에 물을 주고 계셨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난다. 그 해 여름은 연일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고 몇 백년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다. 이상기후로 태풍과 많은 비가 반복적으로 쏟아졌다.

할머니는 수십 년 고추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해 공을 들인 고추농사는 안타깝게 흉년의 길을 맞이해 야만 했다.

할아버지는 속상하셔서 술만 드시며 앓아 누우셨고 곁에 지켜보던 우리 가족들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다.

작년엔 고추 농사도 실패했지만 농사 지은 다른 과일과 채소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환경오염이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편리하고 편한 욕심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증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온실화 되고 기후 이상 변화와 빙하가 녹아 해수면 수위가 높아가고 토양 속에 수분변화와 산성비가 내려 농수산물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었는데 점점 환경오염으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름과 겨울이라는 두 계절만 존재한다고 한다.

나는 땀을 피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찾아 피신하기 위해 종종 걸음을 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에어컨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할머니의 수십년 해온 고추농사를 당연하게 생각해온 나로 인해 환경의 변화 앞에 속수무책 피해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욕심을 내서 음식을 많이 받아 잔반을 많이 남겨버렸던 일들, 내가 편하려고 내 욕심만 내서 우리 할머니 농사를 내가 망치게 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엄마와 나는 전심 준비를 위해 할머니네 텃밭을 찾았다. 할머니 텃밭은 자연을 생각해서 농약을 절대 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직접 기르신다. 그래서 할머니의 텃밭에는 온갖 채소들 사이에 벌레들이 집을 지었다. 달팽이도 배를 문지르며 기어 다니고 진딧물이 앉은 자리에는 개미들이 줄을 잇고 무당벌레도 틈을 노려 배고픔을 달랜다. 건강한 흙이라서 그런지 지렁이도 많다,

할머니 집에 와서 전에 알지 못했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땅의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 할머니의 텃밭에서 자란 갖가지 곡식들과 싱싱한 채소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고 아낌없이 편식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갑자기 나는 우리 할머니 텃밭을 지키기 위한 환경 지킴이가 되고 싶었다. 동생과 나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쓰레기를 주었다.

사람들이 놀다 버린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도 쓰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고 풀 사이, 바위 사이에 양심들을 버리고 흔적들이 많았다.

정말 사람들 때문에 자연에게 나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다.

아빠가 동생과 나의 모습을 보며 “다운이랑 다인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찾았구나~” 하 시며 한바탕 웃으셨다.

열배 더 기쁜 마음으로 동생과 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애국자가 된 느낌이였다,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고, 보람된 일을 한 뒤 동생과 나는 오래된 큰 팽나무 사이 그늘아래 정자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기다랗게 늘어진 가지가 한들한들 흔들리며,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고, 정자 옆쪽에서 흐르는 개울물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 잠이 쏟아졌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 해주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을 채우면서 자연을 훼손해가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한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 인간이 환경을 망가트리고 자연과 동물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한다. 그럼으로써 일회용품의 양이 어마하게 증가되어 환경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자연은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넘쳐나는 자동차들의 매연공세에도, 늘어만 가는 건물들의 무분별한 파괴공격에도 한결 같이 지켜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가는 것을 방관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들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약속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할 때 주방세제보다 쌀뜨물을 모아 설거지를 하신다. 기름기가 많은 건 밀가루를 풀어서 사용하시고 마트에 가실 땐 하상 장바구니를 잊지 않으신다.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실 때 비오는 날은 제외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신다. 운동도 되고 환경오염도 막고 일석이조라고 하셨다.

동생과 나는 일단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겠다.

자연을 위해, 자연에게 한결음, 다가가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환경오염을 지키기 위해 '나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환경 보호는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나는 지구를 위해서 환경파수꾼이 되어 지구가 아파할 일 없도록, 지구가 멸망의 위기가 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깨끗한 환경, 자연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땀으로 키운 고추농사도 유기농으로 키운 야채들도 지구 온난화로부터 오는 자연재해와 병충해들도 모두 이겨내 농사를 지어서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모습을 지켜드리고 싶다.



최우수상

자연보호

이민결 (일신초등학교 4학년)

땅 속에서 씨앗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따뜻한 햇살이
소곤소곤 말을 한다

여기는 좋은 세상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서 눈을 떠봐



여행

노현웅 (화개초등학교 3-6)

여행은 좋아
가면서 바람소리
새소리 바다소리
등을 들을 수 있어

바람소리는 휘휘
새소리는 짹짹
바다소리는 출렁출렁
여행은 좋아



우수상

자연

장소정 (문우초등학교 5-2)

바다처럼 푸른 새싹
방긋방긋한 꽃들
높은 빌딩같은 나무
음악소리를 내는 새들

햇빛을 쬔고 싶어
꿈틀꿈틀
나비와 별을 보고
꽃향기들 사랑사랑

새들에게 멋진 집을
지어주는 나무
 짹짹 노래를
부르는 새들

따뜻한 햇빛
송송송 내리는 눈
눈처럼 하얀 구름
주룩주룩 내리는 비

고마운 자연



우수상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남옥빈 (하백초등학교 5-4)

자동차가 태어납니다.
스멀스멀 나오는 매연에
맑고 푸른 하늘이 사라집니다.

공장이 태어납니다.
꽈꽈 쏟아지는 폐수와 방사능으로
우리 같은 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무작정 버리고 던지는 쓰레기가
우리의 미래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쓰레기를 줄입니다.

쓰레기가 줄면
멋진 자연과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태어납니다.



추억의 서울 여행

최현식 (용봉중학교 2-5)

“엄마 우리 서울 가자”

코로나로 집을 나가지 못한지 2년째, 이제는 심심하다. 괴롭다. 그래서일까?

3년 전에 떠난 서울 여행이 생각나곤 한다. 힘든 여정임에도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빠 없는 서울 여행을 간다. 말썽꾸러기 나, 느림보 거북이 동생, 길치 엄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행이 될 것이다.

“아~ 이번 여행은 망했다”

“그럼 가지 말까?”

“응? 아니야”

사실은 전날 밤에 동생이 사고를 쳤다. 집으로 오다가 도로 하수구에 엄마 핸드폰을 빠뜨린 것이다. 순간 엄마도 나도 멍해졌다. 그 안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다녀야 할 일정들, 열차 시간표, 주변 정보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주변은 어둡고, 도로 가로등만 빛날 뿐이었다. 우리는 힘없이 걸어 집으로 왔다. 아빠가 계셨다. 우리는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다. 말없이 나가시더니 몇 십 분이 지났을까? 조심히 들어오셨다.

“욱, 무슨 냄새가 이렇게 독해”

아빠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역시 핸드폰은 완전히 고장. 멀쩡한 신용카드와 엄마 신분증은 바로 비누로 열심히 씻고 또 씻었다. 엄마는 그 동안 옆에서 잊어버린 정보들을 아빠 핸드폰을 찾아 종이에 옮겨 적었다. 다음 날, 우리는 열차를 11시로 예약을 해 놔서 여유롭게 일어났다. 그런데 아빠는 그렇지 않았는지 버튼이 눌러지더니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신 것이다.

“자, 받아. 전화 안 되면 신경이 쓰여 일이 안 되니깐 갖고 가. 빌린거야. 우리 집은 나 아니면 뭐가 안 돼.” “ok”

아빠는 다시 회사에 갔고 우리는 서둘러 기차역으로 갔다. 우리는 그 뒤 서울에 도착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꼬르륵~~ 배가 고프다고 요동을 친다.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다. 그리고 쉬엄쉬엄 지하철을 구경하며 런닝맨 체험관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몇 날을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해가며 얻은 곳이라 더 좋다. 그러나, 첫 도전의 런닝맨은 나에게 쓰디 쓴 패배를 안겨 주었다. 80포인트 중 79포인트. 정말 아쉬웠다. 조금만 더 하면...

“엄마, 넘 아쉬워.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데...”

“다음에 생각해 보고”

“난 재미없어. 힘들기만 하고.”

우리는 찜질방에 왔다. 무.사.히. 중간에 엄마가 30~40분 길을 해맸다. 역시 엄마는 길치

둘째 날, 비가 내렸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키자니아에 왔다. 빨리 도착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빠에게 잘 있다고 전화도 했다. 이제 탑승시간. 나는 미리 짜둔 계획대로 우선 면허증을 땀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대학교에 가서는 석사에 학사에 박사까지 따고 점심은 동생이랑 햄버거를 만들어 해결했다. 쉬는 타임.. 광장에서 옷놀이 대회가 열렸다. 내가 빠질 수가 없죠. 엄마를 불러 참가했다. 여기서도 첫 도전은 실패. 그런데 두 번째 도전에서는 승리를 했다. 난 떨듯이 기뻐 엄마와 서로 안아주었다.

어느새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타러 갔다. 아~ 피곤하다. 너무 뛰어다녔는지 다리도 아프고, 슬슬 배도 고파온다. 우리는 어제 찜질방 근처에 와서 간단하게 국수와 삶은 계란을 먹고 샤워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셋째 날, 비는 안 내리지만 바닥은 젖어있다. 이번에는 잡 월드에 간다. 동생을 위해. 그래서 오전에만 체험을 하고 우리는 엄마의 일을 보기 위해 다시 서울 쪽으로 왔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진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우산이 없어 갈팡질팡. 엄마의 일은 물 건너가고 시간은 많이 남고 여기서 가까운 곳을 찾았는데 런닝맨 체험관이 나왔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런닝맨 체험관으로 갔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먼저 내가 못하는 것, 겁이 나서 못 했던 것들을 성공하기로 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80포인트 중, 79포인트.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은 쿵쿵쿵.

마지막 코스 돌림판이다. ‘2점만, 2점만 제~발’ “우와~2포인트”

런닝맨 총 81포인트. 인증서와 뱃지, VR이용권을 받았다. 나는 기뻐다. 행복했다.

“현식아 축하해”

“오빠, 축하해”

VR은 동생에게 양보했다. 피곤한 몸도 아프던 다리도 말끔히 사라진 것 같다. 인증서와 뱃지는 잠바 속 깊은 곳에 넣었다. 서울역에 와서는 내 비상금으로 엄마와 동생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 주면서도 아깝지 않았다. 밤 11시에 탄 열차는 다음 날 새벽 2시가 돼서야 광주에 도착했다. 동생이 잠이 덜 깨 다음 코스인 장성까지 갈 뻔 했지만 어느 누나의 덕분으로 가까스로 내리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송정역을 나오니 아빠가 계셨다.

“너희들 재미있게 놀았어?”

“재미있었어”

나는 잠바 속에 넣어 둔 인증서와 뱃지를 아빠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다음에는 아빠도 가서 같이 하자. 알았지?”

동생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없었다. 나의 런닝맨 체험관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가 짜증을 내서 꺼내지만 앓을 뿐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장려상

자연보호

김단호 (월봉초등학교 4-6)

해가 화창해 아빠와 산을 가기로 했다. 나는 이 산을 많이 가 봤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한적한 곳 이어서 나는 이 산을 너무 좋아했다.

아빠랑 단 둘이 간다는 생각에 신이나 춤을 쳤다. 아빠와 손을 잡고 산에 도착했다.

간판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었다. 오늘따라 산에 사람이 없었다. 아빠랑 나는 산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새들도 짹짹 시끄러웠다. 계속 계속 올라갔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기고 산에 나무도 없고 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무 이상했다.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닥에는 온통 쓰레기들이랑 벌레들만 있었다. 두 달 동안 이런 깨끗한 산에서 쓰레기 산이 되 버렸다. 나무와 풀도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사진을 찍기가 싫었다. 나는 내려갈 때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줍기로 했다. 산은 다시 조금 깨끗해졌다. 산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난 간판에 ‘쓰레기를 줍자’는 간판을 꽂았다.

다음 날 난 쓰레기 산이 궁금해서 가보기로 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산을 지키자고 홍보를 해, 이 쓰레기 산이랑 다른 산은 깨끗해지고 다시 산은 웃었다. 이제부터 깨끗한 세상과 산을 만들어야겠다.



장려상

자연이 아파요

양예준 (매곡초등학교 4-2)

작년 여름에 아빠, 엄마랑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름이어서 그런지 너무 더웠다, 그래도 난 낚시를 좋아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갔다.

“아빠! 오늘 물고기 잡혀?” 라고 내가 묻자, “아빠도 모르겠다. 지금 고기 나올 시간인데...” 라고 아빠가 하시니 곧 나올 것 같았다. “오늘은 꼭 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물고기는 안 나왔다.

나는 지쳐서 그냥 바람 쐬러 갔는데 자세히 보니 물이 더러웠다.

나는 생각했다. “몇 년 전에는 깨끗했는데...” 그리고 옆에는 캔에 담배, 그리고 물고기도 죽어 있었다. 나는 너무 슬펐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자연이 죽고 있잖아!”

나는 물을 보고 속상했다. 전에는 푸른 빛깔 같았는데...

자연은 불쌍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도움만 주는데... 나는 그 쓰레기들을 주으려고 했지만 줘지 않았다.

내가 자연이면 그 사람들 불에 쓰레기를 버리게 할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산불이 많이 난다. 아까운 나무들이 태워지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쓰레기를 땅에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난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애들은 곤충이 자연인 걸 잘 모른다. 그래서 곤충을 죽인다. 그건 자연을 죽이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야! 곤충들도 자연이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했다.

나도 옛날엔 곤충을 죽였다.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곤충도 자연이라는 걸...

난 이제 내가 아닌 동생, 친구, 형, 누나에게 알려주고 싶다. 어른들에게도 말할 거다.

자연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할 거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자연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분 저와 좋은 자연을 만들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노력을 보여 주겠다.

첫 번째, 종이를 아낀다. 종이를 앞뒤로 다 사용해야 한다. 이것만 지켜도 자연의 40%는 지킨다.

두 번째, 나무를 심자. 사람들이 다 베어버린 나무들을 다시 심자, 그래서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리자.

세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자, 시커먼 하늘을 지우고 깨끗한 하늘을 만들기로 노력하자.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 사람들, 그리고 나도 잘 지키겠다. “자연아! 이젠 네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나는 자연이 없어진다는 걸 듣고, 식물학자가 되려고 한다.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자연아 사랑해!



장려상

자연보호

윤은호 (일동초등학교 5학년)

나무가 말하고
해님도 말을 한다

마스크가 움직이고
내 눈이 반짝반짝

오늘은 우주가 움직여
동시가 내게로 왔다



장려상

여행 못 간 사람

박하윤 (무등초등학교 4-3)

코로나 19 때문에 작년에는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내준 영상을 듣고 있던 내가 떠오른다. 그리고 현재 나는 작년부터 캠핑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쉽다.

요즘에는 집에서 쉬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밖에서 한가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 아직도 가지 못해 서럽다. 요즘 시대에는 학교도 조심히 가야한다. 왜냐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가야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코로나에 확진 될 수도 있다.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집에 와서 벗으면 귀가 정말 아프다.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잠시 쉰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활동은 할 수가 없으니 여행이라는 것이 그림의 떡이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가는 것이 답일까? 시골이나 바다도 사람들이 있다. 엄마랑 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산에 올라 갈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 숨이 더 차올랐다. 나무 사이에 보이는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고 산새의 소리는 듣기 좋은데 숨이 차오르니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졌다. 열심히 천천히 올라가서 산 위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가지고 간 음료를 마시는데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산 위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았다. 가까운 산 위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니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감사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교하냐 아닐까?

지금은 백신도 맞고 한국과 세계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께 자주 캠핑을 가자고 말해보는데 시간을 내어보려고 하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갈 수가 없고 좀처럼 안정세가 되지 않으니 그림의 캠핑은 이대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 인터넷으로 랜선 여행 영상을 보니 더 가고 싶다. 이번 여름에는 꼭 가족들과 캠핑을 가고 싶다. 먼 외국이 아니라 가까운 바다나 산도 좋다.

캠핑을 가고 싶은 이유는 쉬고 싶기 때문이다. 조용한 자연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쉬고 싶다. 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동물원

정시우 (아이꿈 어린이집)

저는 아빠 차를 타고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동물은 하얀색 토끼예요. 동물원에 도착해서 사람이 많으니 엄마는 손을 꼭 잡고 다니자고 하셨어요. 동물원에서 저를 제일 반긴 동물은 코끼리였어요.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 아빠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요. 애기 코끼리는 움직일 때 마다 너무 귀여웠어요. 코끼리가 코를 이용해 물도 마시고 풀도 먹었어요. 그 다음 만난 동물은 원숭이예요. 원숭이는 제가 다가가니 먹을 것을 주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원숭이는 얼굴이 살구색이고 엉덩이는 빨간색이에요. 꼬리는 길고 갈색이에요. 동물원에서 하마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수달도 보니 제가 좋아하고 만나고 싶었던 토끼가 보였어요. 토끼집에 토끼가 열 마리나 있었어요.

당근을 먹고 있는 토끼를 보고 엄마에게 ‘엄마 저도 토끼에게 당근을 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하니 엄마께서 ‘그래’라고 말씀 하시고 당근을 사주셨어요. 토끼에게 당근을 주니 저를 졸졸 따라오며 당근을 먹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토끼를 보고 엄마 아빠랑 다음에 또 동물원에 가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미있었던 동물원에 또 가고 싶어요.



바다

조 은 (양산초등학교 3-4)

우리 엄마 품 같은
큰 마음씨의 바다
따뜻한
우리 아빠 같은 하늘

손끝까지 닿는
물이 귀를 깨우게 하는
소리

밤이 되면
쉬러 가는 바다
바다가 쉴 때
나도 한 몸으로 쉰다.

다음날에도
별빛 같은 마음씨로 오는 바다



나무

손효정 (화개초등학교 3-2)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나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쾌하게 해주는 나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우리의 영웅처럼 없애준다

마치 의사 같기도 하고
영웅 같기도 한
직업 많은 나무

나무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 정말 정말
버릴 수 없는 나무



여행

정혜인 (일곡초등학교 2학년)

코로나 너 때문에
여행을 못가잖니

그래도 난 미국도
러시아도 갈거야

상상의 날개를 펴고
우주로 올라간다



커다란 도화지

김은유 (산정중학교 1-1)

자연은 도화지다. 그림에 물감이 튀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 자연도 그림을 그린 도화지처럼 훼손이 되면 살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림에 회색 물감이 튀면 없애지도 되돌리지도 못한다. 자연에도 공장에서 연기를 내뿜고 자동차들도 연기를 내뿜으면 많은 연기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자연을 삼켜버린다. 나무들이 이 연기들을 마시고 마셔도 인간들은 공장에서는 쉬지 않고 연기를 내뿜고 자동차도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연기들을 마셔주는 나무들을 없애고 있어서 나무는 빨아들이고 있어도 계속 연기가 배출되어 다 없애지지 못하고 쌓인다.

그림에 빨간 물감이 튀면 없애지도 되돌리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꺼지지 않은 담배꽂이를 그냥 산에 버린다. 안 꺼진 작은 불시로 인해 화산같이 커다란 불이 되어 자연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 준다. 많은 동물들이 이 때문에 살 곳을 잃고 나무가 죽어 연기들을 마시고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줄 수 없다. 또 기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림에 검정 물감이 튀면 없애지도 되돌리지도 못한다. 공장에서의 폐유 불법 방류가 바다까지 흘러가 물고기가 폐사하고 새들이 기름을 덮여져서 죽게 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반대로 그림에 분홍색을 널리 퍼트리면 색처럼 따뜻하고 꽃처럼 행복하게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담배는 줄인다. 그리고 일부러 폐유를 불법 방류하지 않으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준다면 이런 노력들로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나의 앞을 막는 벽 같은 환경파괴보다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리 같은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원 고 모 집

본원에서 발간하는 무등문화 제27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주제와 형식은 자유로우며 채택된 글은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이 지급됩니다.
내 고장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향토문화연구사례
- 문화유적·유물·민속·전설·민요·가사 등 발표되지 않은 자료
- 고서·고화 사진
- 문예작품(시·수필·소설·공트·평론 등)
- 기타
- 대상 - 출향 향우 및 광주시민 모두
- 원고매수 제한없음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4층 (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

북구문화원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회원가입 및 특전



회원이 되시면

북구문화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우송해 드리고 본 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초대되며, 본 원에서 공연, 전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강좌 수강시 50% 할인 혜택과 기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입방법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으셔서 우편으로 북구문화원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 후 원금은 회원가입신청서에 명기된 성명으로 농협계좌 607-01-110747(예금주:광주북구문화원)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년간 후원회비는 20,000원이며, 전화 527-7701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4층(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

향토자료를 수집합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자 그동안 각 문중이나 단체에서 소장해왔던 광주시 북구지역의 과거 기록이 담긴 유물, 전래풍속 등을 수집, 보존하고자 합니다.

1.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
2. 북구지역의 과거 선인들의 생활 상을 담은 기록(고서)
3. 북구지역의 전래풍습, 민요, 전설, 일화 등
4. 북구지역의 토박이로서 선조들의 기록이 담긴 족보
5. 고증이 되지 않은 각종 문서
6. 기타 북구의 역사



無等文化

제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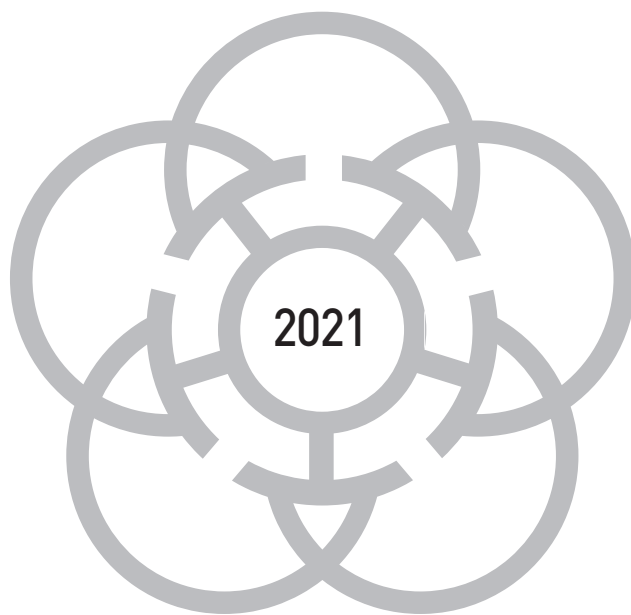
2021년 12월 29일 인쇄
202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오 동 오
편집인 : 김 정 희, 지 천 일, 김 희 영

발행처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전화. 062) 527-7701
팩스. 062) 527-7702

인 쇄 : 한길인터라인(T. 062-956-6812)

비매품 이 책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발행인의 승낙없이 무단 복제 및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Tel. 062) 527-7701 Fax. 062) 527-7702

<http://gjbukgu.or.kr>